

碩士學位論文

감귤 산지유통 실태 및 공동정산제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農業經濟學科

康 彭 喆

2001년 12월

감귤 산지유통 실태 및 공동정산제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玄 公 南

康 彭 喆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康彭喆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1年 12月

A Study on the Actual Producers Marketing and Cooperative Pooling Systems of Citrus in Jeju

Peang-Chol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Kong-Nam Hyu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conomics

2001. 12.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by

Kang Dong-II,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Hyun Kong-Nam,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Yu Young-Bong,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December, 2001.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I.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 방법	3
4. 논문의 구성	3
II. 제주감귤 산지유통 실태분석	5
1. 제주도 감귤 산지유통조직 실태	5
2. 감귤 선과장 실태	12
3. 감귤출하 및 유통에 대한 의향조사 결과	21
III 감귤 산지유통체계의 유형화 및 운영사례	29
1. 감귤산지유통체계 유형화	29
2. 유형별 출하방식 운영사례	31
IV. 제주 감귤 작목반 공동정산제 실태분석	41
1. 남원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실태분석	41
2. 남원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의향 조사 결과분석	51
V. 감귤산지유통조직 공동정산제 활성화 방안	59
1. 감귤 공동정산제 도입시 고려사항	59
2. 감귤 공동정산제 활성화 방안	62



V. 결 론	68
1. 연구 결과의 요약	6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71
[참 고 문 헌]	72
[설 문 지]	74



表 目 次

[표Ⅱ-1] 감귤 연도별('97~2000년산) 출하주체별 출하상황	7
[표Ⅱ-2] 전국 시장별 출하상황('97~ '00년산)	10
[표Ⅱ-3] 감귤 출하단체별 거래처 현황	10
[표Ⅱ-4] 감귤유통마진 내역	11
[표Ⅱ-5] 제주 감귤 선과장 시군별·출하단체별 현황	13
[표Ⅱ-6] 감귤선과장 지역별 및 구조별 평균 규모 및 개수(845개 선과장 조사)	14
[표Ⅱ-7] 감귤선과장 면적별 분포도	14
[표Ⅱ-8] 지역별 감귤작목반 현황	16
[표Ⅱ-9] 감귤 읍·면당 평균 작목반수	17
[표Ⅱ-10] 리(洞)별 농·감협작목반수 현황	18
[표Ⅱ-11] 감귤선과기 출하단체별 시설현황	19
[표Ⅱ-12] 출하주체별 감귤선과장 및 선과기 출하처리실태	20
[표Ⅱ-13] 출하주체별, 출하실적 규모별 감귤선과장 분포	21
[표Ⅱ-14] 감귤출하시기 결정 주체에 대한 응답 결과	22
[표Ⅱ-15] 감귤 출하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일반농가)	22
[표Ⅱ-16] 감귤 가격정보 획득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23
[표Ⅱ-17] 감귤 출하처 결정 응답 결과	23
[표Ⅱ-18] 감귤출하시 출하자 표기에 대한 응답 결과	24
[표Ⅱ-19] 감귤선별시 결정 주체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24
[표Ⅱ-20] 감귤선과시 출하농가 선별 관여 여부 응답 결과	25
[표Ⅱ-21] 감귤 계통출하를 주로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26
[표Ⅱ-22] 감귤 상인출하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27
[표Ⅱ-23] 감귤 유통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응답 결과	27

[표Ⅲ-1] 개별선별-개별출하-개별정산 작목반 사례	34
[표Ⅲ-2] 공동출하-공동선별-개별정산 작목반 사례	36
[표Ⅲ-3] 제주감협 의귀작목반 공동출하-공동정산 사례	37
[표Ⅲ-4] 호돈농협 하효작목반 공동출하-공동정산 사례	38
[표Ⅳ-1] 남원 신성작목반 감귤출하 계획서('00년산)	42
[표Ⅳ-2] 남원 신성작목반 개인별 출하계획서 (예시)	42
[표Ⅳ-3] 신성작목반 감귤 크기에 관한 규정	44
[표Ⅳ-4] 남원농협 작목반별 관당수취가('00년산)	48
[표Ⅳ-5] 신성작목반원별 '00년산 감귤수량 및 정산내역	49
[표Ⅳ-6] 남원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참여동기에 대한 응답 결과	51
[표Ⅳ-7] 신성작목반 공동상표 출하시 가격향상에 대한 응답 결과	54
[표Ⅳ-8] 신성작목반 대금정산(3번)에 대한 만족도 의향 결과	54
[표Ⅳ-9] 감귤 공동정산제 작목반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응답 결과	55
[표Ⅳ-10] 앞으로 공동정산제가 성공요인에 대한 신성작목반원의 응답 결과	56
[표Ⅳ-11] 공동정산제 실시 후 효과에 대한 신성작목반원의 응답 결과	57
[표Ⅳ-12] 공동정산제 실시 후 문제점	58
[표Ⅳ-13] 공동정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성작목반원의 응답 결과	58
[표Ⅴ-1] 공동정산제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 응답 결과	61
[표Ⅴ-2] 감귤 공동정산제 도입에 대한 의견여부	62
[표Ⅴ-3]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중·대형선과장체제로 개편 의향 여부	64

圖 目 次

[도Ⅱ-1] 감귤의 유통경로	6
[도Ⅱ-2] '97~ '00년산 감귤 월별 출하량 및 평균 경락가격	8
[도Ⅱ-3] 연도별 농·감협 선과장 변화 추이	15
[도Ⅱ-4] 연도별 상인선과장 설치 현황	15
[도Ⅱ-5] 감귤출하량 결정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일반농가)	24
[도Ⅱ-6] 감귤 작목반 등급 구분 여부 응답 결과 (작목반장)	25
[도Ⅲ-1] 감귤 단계별 개별출하방식과 공동출하방식 체계 비교	29
[도Ⅳ-1] 신성작목반 출하전표 양식	43
[도Ⅳ-2] 신성작목반 정산시기별 및 상품별 수량 및 관당 평균가격('00년산)	45
[도Ⅳ-3] 신성작목반 감귤 등급별 정산물량 및 평균가격('00년산)	46
[도Ⅳ-4] 신성작목반 '00년산 감귤 크기별 등급비율	46
[도Ⅳ-5] 신성작목반 '00년산 감귤 크기별 수량 및 가격 (10월-3월)	47
[도Ⅳ-6] 신성작목반 현재 포장상자 15kg출하에 대한 응답 결과	52
[도Ⅳ-7] 신성작목반 감귤 출하처에 대한 응답 결과	53
[도Ⅳ-8] 불만족시 대금정산 기간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55
[도Ⅴ-1] 대형선과장체제에 의한 공동정산제 시행체계도(안)	64
[도Ⅴ-2] 소형선과장에서 중대형화선과장으로 개편시 적정선과 규모 여부	65

SUMMARY

In order to improve the shipment and distribution of citrus fruits, this study recognizes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pooling operation system. By grasping the reality of various citrus shipment organizations including *Zakmokban*(a farmers cooperation unit for production and marketing of farm products) which is adopting cooperative pooling operation, this study will present a basic direction toward introducing cooperative pooling system.

Through researching reference books and statistical data, the reality of citrus shipment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packing houses were analyzed, and questionnaire surveys to individual citrus farmers and *Zakmokban* leaders were held and analyzed.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present system of cooperative shipment is operated mostly in the form of individual units. Basically, each producer decides the quantity, time and place of citrus shipment. Individual producer takes directly or indirectly part in the process of selection of non-commodity fruits on the packing line. Individual auction and calculation at the wholesale stage are also adopted.

Secondly, when we look at the packing house, which is the core of the distribution facilities of the producing areas, they are mostly small-size packing houses; therefore, packing facilities are underdeveloped and the scale of shipment handling is very small.

Thirdly,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s held to the producers of citrus, negative opinions toward the entire present citrus distribution came out strongly. This was evaluated as showing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system of distribution and shipment of citrus.

Based on what was understood from the reality of citrus shipment, we can

categorize the form of citrus shipment from collection stage to shipper's receipts calculation into following five patterns: ① Selection-shipment-calculation of shipment by the merchants, ② individual selection-individual shipping-individual calculation at the *Zakmokban*, ③ joint selection-joint shipment-individual calculation by the *Zakmokban*, ④ joint selection-joint shipment-joint calculation by the *Zakmokban*, ⑤ Cooperative pooling operations by a large scale agricultural cooperative group. Most of the shipment organization of citrus in Jeju-do adopt pattern 1 and pattern 2. Pattern 3 is applied in a few leading *Zakmokbans*. Pattern 4 was found only in three *Zakmokbans* among 459 citrus *Zakmokbans* in jeju-do. Shinseong *Zakmokban* of Namwon Agricultural Cooperative had the form most similar to pattern 4. Pattern 5 is not being applied yet in the citrus *Zakmokbans* in jeju-do.

The effects of Cooperative Pooling operations being used in the Shinseong *Zakmokban* are an increase in price, stability of income, improvement of market bargaining power, and gains of trust by purchasers through planned and continuous shipment. However, although only a year has passed since it started, weak points such as difference in cultivating technique, weakening of cooperative spirit, increase in distribution costs etc., are appearing.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hipment reality of citrus distribution organizations in th producing area and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from books related to the patterns and the results of analysis of actual evidence, points of suggestion for enhancing activation plan of Cooperative Pooling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hen introducing the Cooperative Pooling, a large scale packing house system should be created through unifications of small cooperative shipment units or by direct operations by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Specialized operators only in sales should be in charge of shipment. By doing so, we need to secure the power for market bargaining.

Secondly, common profit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therefore, the leading farmers and ordinary farmers need to share their own cultivation techniques and other various informations.

Thirdly, if we hope to gain effect in the early stage after beginning the Cooperative Pooling and if we expect to spread that to farmers who still are not participating, then, professional support and instruction is necessary so that the operation can be progressed successfully.

Forth, in order for people to have accurate understanding of Cooperation Pooling and to gain precise effects and also for people to recognize why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from current individual shipment system to Cooperative Pooling System, we need to emphasize on publication, education and distributions of informations.



I. 서 론

1. 문제제기

제주감귤은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급속한 성장을 하여 우리나라 과수 중 에서 생산·소비 및 농가수입 측면에서 사과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도 경제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감귤산업은 생산 과잉, 소비 증가율 둔화현상, 오렌지 수입자유화, 감귤생산자의 조직화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시장교섭력이 약화되고 감귤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이 불안정하게 되어 제주 지역경제에 심각한 변화를 주고 있다.

국내 감귤생산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생산과잉 및 해거리 현상, 홍수 출하 등 생산조정 및 출하 조절에 의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上品을 출하해도 그에 상응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판물량의 多少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등 위험부담을 항상 갖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생산 및 출하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감귤 작목반은 80년대부터 감귤의 시장교섭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의 현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귤작목 반 가입비율은 37% 정도 밖에 안되고, 평균 작목반원이 25명으로써 작목반 조직 기반이 취약하다. 그리고 감귤과 관련된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시설의 핵심인 선과장도 대부분 소형 선과장체제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선과장당 평균 출하량이 4만상자로 처리규모가 영세하다. 이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선과장들 간에도 연계성이 결여되어 시장 출하시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출하조정이 나 소비시 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감귤 생산에서부터 출하, 선별, 정산에 이르기까지 개별농가별로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감귤출하와 관련하여서 출하량, 출하처, 출하시기 등이 개별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하시장에서 완전경쟁관계로 서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출하형태로는 계획적인 출하와 출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시장에 대한 가격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감귤 선별시 대부분 크기위주로 등급이 결정되고, 출하자가 직접 선별에 관여함으로써 공정한 선별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감귤은 생산조정과 함께 출하 및 유통부문에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계획적인 출하가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총생산량 조절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생산조정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출하를 통한 유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유통개선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공동정산제를 기초로 하는 공동선별-공동출하방식이다.

공동정산제 방식은 계획적인 출하에 인한 출하조정으로 개별농가의 판매경쟁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가격결정력과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소득안정 및 규격화·등급화로 인한 품질향상, 자체상표 개발에 의한 대외적 인식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감귤 공동정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제주도 감귤 공동정산제 시행은 초기단계이고, 생산농민들은 공동정산제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인식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本 研究에서는 감귤의 출하 및 유통부분의 개선방안으로서 공동출하-공동정산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산지유통조직의 감귤 출하실태 파악과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작목반 출하 및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공동정산제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귤 공동정산제 도입을 위하여 현재 감귤산지유통조직의 출하 및 유통실

태를 분석함으로써 출하체계 및 선과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둘째, 감귤산지유통조직의 감귤생산관리에서 대금정산까지 각 단계별 유형화를 통하여 공동출하와 개별출하의 형태별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각 유형화별 운영사례를 통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감귤 출하 현상을 진단하고 공동정산제 도입 방향을 검토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이 문헌연구와 실증방법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감귤 출하조절을 위한 공동정산제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는 국내·외 서적, 논문, 기타 각종 간행물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감귤산지조직의 출하체계 및 공동정산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실태를 파악하고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실증적으로 작목반 현장조사와 산지유통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감귤작목반 및 공동정산제 시범 작목반의 운영 및 출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생산농가 및 작목반장에게 감귤 출하 실태와 공동정산제 도입에 대한 의향 조사 및 분석을 하였고, 공동정산제에 제일 근접한 남원 신성작목반의 감귤 출하 실태 파악과 의향 분석을 통하여 공동정산제 도입을 위한 현상진단과 시행방안을 분석하였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I 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문제의 제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제 II 장은 감굴산지 유통실태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서, 감굴 출하 및 유통실태, 감굴 선과장 실태, 설문 자료에 의한 출하실태 및 의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III 장은 감굴산지유통체계의 유형화와 운영사례에 관한 부분으로서, 감굴 생산 관리에서부터 정산까지 각 출하단계별 형태에 따라 산지유통조직을 유형화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출하방식과 공동출하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산지유통조직의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제 IV 은 감굴작목반 공동정산제 실태분석에 대한 부분으로서, 감굴 작목반 중 공동정산에 제일 근접한 남원 신성작목반의 감굴 출하 및 운영에 대한 실태와 의향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제 V 장은 감굴 공동정산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부분으로서, 감굴 공동정산제 도입시 고려사항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VI 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Ⅱ. 제주감귤 산지유통 실태분석

1. 제주도 감귤 산지유통조직 실태

1) 감귤출하 및 유통실태

감귤출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의 감귤 출하체제 구성을 보고, 다음으로 감귤출하주체별 실태, 시기별 출하실태, 지역별 출하실태, 출하시장별 출하실태, 유통마진 실태 등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 출하체제

감귤의 유통경로는 크게 산지 농협이나 감협을 통한 계통출하체제와 포전거래와 정전판매를 포함한 상인출하체제로 나누어진다.

계통출하의 경우 생산자는 농감협 직영선과장 및 자신이 속한 작목반에서 선과·포장을 통하여 도매시장, 물류센터, 농협공판장 등 다양한 출하처로 출하하고 있으며, 영농법인도 자신들의 선과장을 통해 각각의 출하처로 출하하고 있다.

상인출하의 경우 포전거래, 정전판매, 창고떼기로 수집을 한 후 자신의 선과장에서 선과·포장을 통하여 전속거래처 및 도매시장 등 다양한 출하처에 출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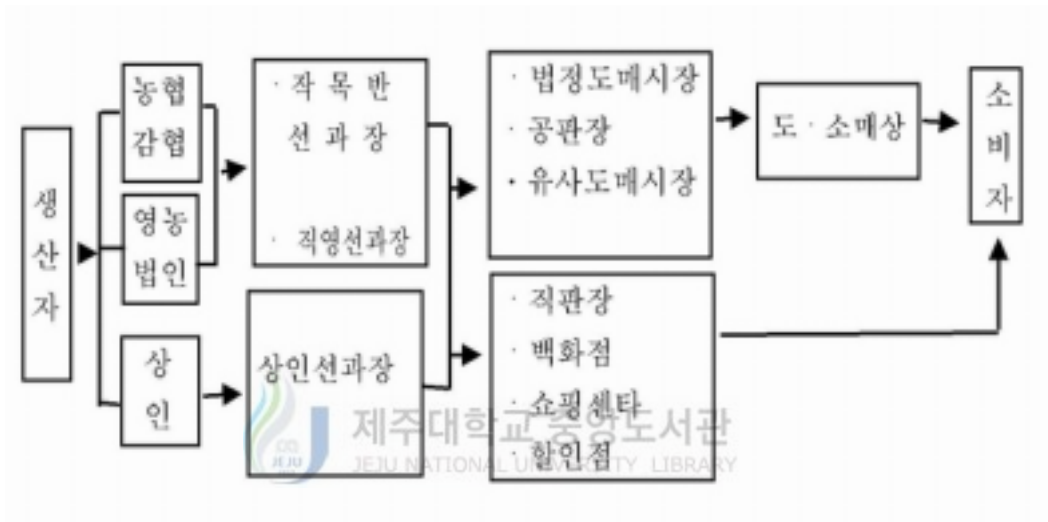
도매시장 중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감귤반입량을 보면 서울반입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01년산 가락동 도매시장내 도매법인별 취급물량 점유율은 중앙청과가 29%로 가장 높고, 서울청과가 24%, 농협공판장이 23%, 동화청과가 13%, 한국청과가 11% 정도이다. 나머지는 청량리시장, 영등포시장 등 유사도매시장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중도매상의 판매처별 비율은 소매상 및 트

럭행상에게 60%,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30%, 학교급식 및 요식업체 등 대량수요처에 10% 정도로 추정된다.

감귤의 소매상 형태로는 과일전문소매상, 일반소매상,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노점상, 주택가 구멍가게, 트럭행상 등 다양하다.

[도Ⅱ-1] 감귤의 유통경로



(2) 출하주체별 출하실태

‘97년~ ‘00년산 감귤의 출하주체별 출하실태를 보면 농협이 62%, 상인단체 35%, 영농법인 3%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에 의한 계통출하비율을 살펴보면 ‘90년 28%, ‘95년 50%, ‘98년 58%, ‘99년 63%, ‘00년 73%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상인단체에 의한 출하는 ‘97년 42%, ‘98년 39%, ‘99년 34%, ‘00년 25%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상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상인의 구매 희망가격보다 농가의 판매가격이 높아 상인거래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귤생산자들이 계통출하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많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통출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출하자인 생산자의 의사에 의해 출하시기, 출하

처, 출하량, 선별이 결정되고 있다. 상인출하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전속거래처와의 연락을 통하여 상인 스스로 출하시기 및 출하량, 선별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하형태로는 시장에서 완전경쟁상태로 서로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계획적인 출하와 출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등락 폭이 심하고 시장교섭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표Ⅱ-1] 감귤 연도별('97~2000년산) 출하주체별 출하상황 (단위: 톤, %)

구 분	평 균		2000년산		99년산		98년산		97년산	
	출하량	점유비	출하량	점유비	출하량	점유비	출하량	점유비	출하량	점유비
계	503,476	100	409,374	100	542,411	100	482,327	100	579,788	100
생산자단체	310,746	62	297,859	73	339,389	63	281,079	58	324,655	56
상인단체	179,504	35	102,830	25	184,695	34	186,402	39	244,088	42
영농법인	13,226	3	8,685	2	18,327	3	14,846	3	11,045	2

자료: '00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석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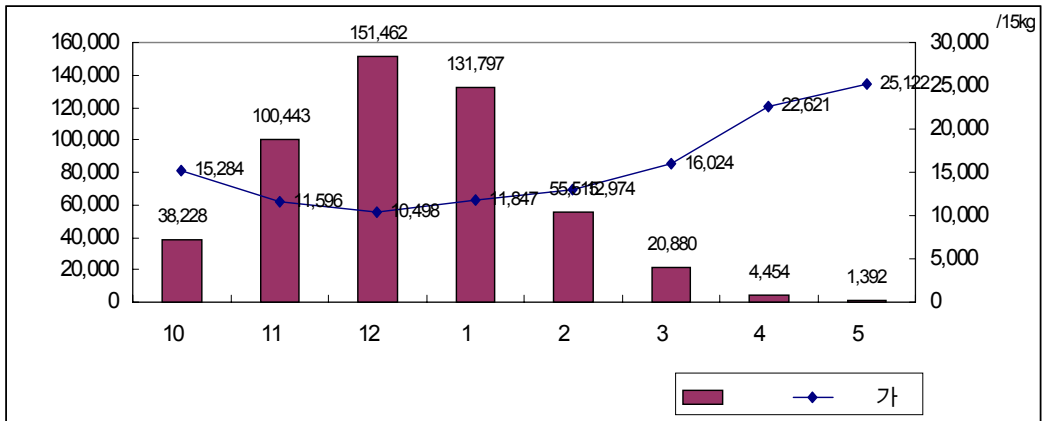
(3) 출하시기(월)별 출하실태

'97~ '00년산 감귤의 월별 출하상황을 살펴보면 11월~1월에 76%가 집중 출하되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4월~5월까지 출하량은 2% 밖에 안되지만 가격은 12월 보다 215~239%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10월과 3월에도 출하량은 4~7% 정도이지만 가격은 12월 보다 146~153% 정도 높다.

11월~1월 사이에 출하집중현상은 품종구성¹⁾ 때문으로 월별판매가격 하락으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월별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기(월)별 출하량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1) 2000년산의 경우 총생산량의 6.0%는 극조생, 조생 83.4%, 보통 8.7%, 만감류 1.9%로 조생은주가 대부분 차지. 2000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석,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2001, p20

[도 II-2] '97~ '00년산 감귤 월별 출하량 및 평균 경락가격



자료: '97~ '00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석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4) 지역별 출하 실태

강경선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별 계통출하실태 비율은 북제주군 71.5%, 제주시 63.6%, 남제주군 47.8%, 서귀포시는 46.9%이다. 산북지역 계통출하 비율이 산남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²⁾ 특히 제주밀감 생산량의 26.9%를 생산하는 남원지역의 계통출하 비율이 가장 낮은 32.2%에 불과하였다.³⁾

이렇게 산남지역이 계통출하 비율이 낮은 것은 타지역에 비해 기후여건 및 재배환경이 좋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고품질이 생산되고 상인과의 가격홍정을 통하여 그에 상응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상인출하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계통출하보다는 상인출하를 더 선호하게 만들었다. 또한 농감협의 마케팅능력이 현재는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생산자들의 의식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농감협의 마케팅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⁴⁾

2) 산북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북쪽지역을 말하는데,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포함되고 산남지역은 제주도 남쪽지역으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말한다.

3) 강경선, 농업생산자조직론 -제주 감귤작목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130

4) 강경선, 농업생산자조직론 -제주 감귤작목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130

한편 산북지역은 재배환경과 기후여건 때문에 산남지역보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상인출하시 품질 및 가격에 대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상인출하보다 계통출하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월별출하 특징을 보면, 10~11월에 산북과 산남지역의 출하비율이 약 50:50이었으나 2~4월에는 20:80으로 산남지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후여건과 저장고, 품종구성에 기인한 것이다. 산북지역은 극조생 비율이 산남지역보다 높고, 저장고 부족으로 인하여 수확 후 조기 출하함으로써 10~11월 출하비율은 산남지역과 비슷하다. 한편 산남지역은 저장 및 보통·만생 출하로 2~4월 출하비율이 산북지역보다 월등히 높다.⁵⁾

이러한 점은 기후여건과 저장고, 품종구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감귤전체의 계획적인 출하조절을 고려할 경우 시기별 출하조절, 출하시기의 효율성 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⁶⁾

(4) 출하 시장별 출하실태

전국 시장별 출하 현황을 보면 공영도매시장은 '97년산 40%에서 '00년산은 55%로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협공판장 출하도 '97년산 11%에서 '00년산은 14%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사시장 출하는 '97년산 40%에서 '00년산 21%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직거래 및 일반법정 도매시장은 변함이 거의 없다.

공영도매시장, 농협공판장, 일반법정도매시장, 직거래 등 제도권 시장 출하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도매시장 출하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극조생 생산량은 북제주군이 서귀포시의 6.3배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보통은주는 서귀포시가 북제주군의 3배, 제주시 6배정도 더 생산되고 있고, 만감류는 남제주군이 제주시 및 북제주군에 5.5배정도 많이 생산된다. 북제주군과 제주시는 조생종 생산량의 66%를 차지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보통은주 및 만감류 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다.('00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제주농협지역본부·제주감귤협의회, 2001, p21)

6) 유영봉·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25~26

[표Ⅱ-2] 전국 시장별 출하상황('97~ '00년산) (단위: 톤, %)

구분	'00년산		'99년산		'98년산		'97년산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합계	409,374	100	542,411	100	482,327	100	579,788	100
공영도매시장	224,454	55	263,624	49	214,832	44	235,107	40
농협공판장	57,391	14	68,745	13	60,628	13	62,271	11
일반법정 도매시장	11,116	3	14,198	2	10,107	2	11,974	2
유사도매시장	86,431	21	155,837	29	165,358	34	230,166	40
직거래	29,982	7	40,007	7	31,402	7	40,270	7

자료: '97~ '00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석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생산주체별 거래처 현황은 제주도청 자료에 의하면 '98년에 6,292개의 거래처에 농감협 및 상인조합이 감귤을 출하하였다⁷⁾. 세부적으로 보면 19개 지역농협은 각각 74개 거래처에 출하를 하였고, 13개 감협지소는 각각 98개 거래처에 출하를 하였다. 상인조합(북부, 남부, 남세조합)은 평균적으로 1063개의 거래처에 출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감협 및 상인단체가 이렇게 많은 출하처에 소규모 분산 출하로 경쟁함으로써 이에 다른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Ⅱ-3] 감귤 출하단체별 거래처 현황 (단위: 개수)

단체별		계	농협	감협	영농조합	상인조합
단체수		36	19	13	1	3
거래처수	97	5,248	1,604	1,268	111	2,265
	98	6,292	1,411	1,281	411	3,189

자료: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 1999. 7

(5) 감귤의 유통마진

감귤의 유통마진을 보면 수집상을 통한 유통경로가 농감협을 통한 유통경로가 유통마진이 낮고 농가수취율이 높다.

서귀포→서울(가락시장)의 감귤의 유통마진을 보면 '98년도 유통마진42.4%는

7)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감귤출하단체 및 거래처 현황, 제주도, 1999, p24

전년도 47.2% 보다 4.8%가 낮은 것인데 이것은 감귤의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가수취율은 상승하였으나 IMF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상인이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99년도 유통마진 57.5%로써 감귤생산량이 증가하여서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유통마진 보다 15.1%가 높다. 반면 '00년도 유통마진은 전년도 보다 10.5% 낮은 47.0%로서, 이는 감귤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였고 직접비의 비중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마진내용을 보면 직접비 비율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00년도 직접비 비율내역을 보면 운송비가 5.7%, 포장재비 3.7%, 감모 3.4%, 상장수수료 2.7%, 선과비 2.5%, 하차비 1.45로써 운송비 비율이 가장 높다. 한편 기타운영비 비율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00년도 소매상 비율 16.1%로서 중도매인 3.2%보다 월등히 높다. 이윤 내역을 보면 소매단계가 4.8%로서 도매단계 3.5%보다 높다.

단계별 마진을 보면 출하와 도매단계 마진보다 소매단계의 마진율이 가장 높다.

[표Ⅱ-4] 감귤유통마진 내역

(단위 : %)

구 분		2000년(12월 조사)		1999 (12월 조사)		1998년(12월 조사)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농 가 수 취 율		53.0	48.9	42.5	40.0	57.6	47.6
유통 마 진		47.0	51.1	57.5	60.0	42.4	52.4
마진 내용	직 접 비	19.4	19.4	26.7	26.4	24.8	24.7
	기타운영비	19.3	20.8	14.7	15.5	8.3	10.4
	이 윤	8.3	10.9	16.1	18.1	9.3	17.3
단계별 마진	출 하 단 계	10.3	14.4	15.2	17.8	12.3	22.3
	도 매 단 계	10.8	10.8	14.5	14.5	11.1	11.1
	소 매 단 계	25.9	25.9	27.8	27.7	19.0	19.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1

주) A 경로 : 생산자 →농감협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유통경로는 서귀포→서울

B 경로 : 생산자 →수집상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유통경로는 서귀포→서울

2. 감귤 선과장 실태

감귤 선과장은 수집, 선별, 등급화, 포장, 출하 등 감귤과 관련된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시설의 핵심이다. 따라서 감귤산지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과장 실태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는 감귤 선과장의 출하단체별·지역별 현황, 변화 추이, 출하 실태, 농감협 작목반 현황, 선과기 현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감귤선과장 현황

(1) 감귤선과장 출하단체별·지역별 현황

제주도 감귤선과장 현황을 보면 '01년 현재 916개가 설치되어 있다. 출하단체별 선과장 현황을 보면 농·감협선과장이 559개(61.0%), 상인선과장이 341개(37.3%), 영농법인 16개(1.7%)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시군별 분포 비율을 보면 남제주군이 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귀포시가 27.8%, 북제주군이 20.6%, 제주시가 19.5%이다. 따라서 산남지역이 감귤선과장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출하단체별·지역별 분포 비율을 보면 [표Ⅱ-5]과 같다. 농감협 선과장 현황을 보면 남제주군이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제주군이 27%로서 군지역 농감협 선과장 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 18%, 제주시 9%로써, 시지역 농감협 선과장 비율은 28% 밖에 안 된다.

상인단체의 선과장 현황을 보면, 농감협 선과장의 지역별 분포와 반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지역 상인선과장 비율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46%, 제주시가 38%이다. 한편 군지역은 16%로써, 남제주군이 9%, 북제주군이 7%를 차지하고 있다.

영농법인 선과장 현황을 보면 남제주군이 62.5%, 북제주군이 25%로써 군지역이 8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시지역은 12.5%이다.

즉, 농감협 및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의 선과장은 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상인단체의 선과장은 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Ⅱ-5] 제주 감귤 선과장 시군별·출하단체별 현황 (단위: 개소)

시군별	계(비율)	농협	감협	납세조합	청과조합	영농법인	개인
계	916(100.0)	329(35.9)	230(25.1)	224(24.5)	108(11.8)	16(1.7)	9(1.0)
제주시	179(19.5)	34	18	85	41	-	1
서귀포시	255(27.8)	51	50	101	51	2	-
북제주군	189(20.6)	85	68	17	8	4	7
남제주군	293(32.0)	159	94	21	8	10	1

자료 :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 2001. 2. 20

제주도청의 '00년도 감귤선과장 실태조사대장을 참고로 하여 감귤선과장 916개 중 845개 감귤선과장 평균 면적을 확인해 보면, [표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105평으로 조사되었다. 농감협 선과장의 지역별 면적을 보면 제주시가 평균 143평으로써 가장 넓고, 서귀포시 평균 135평, 북제주군 평균 106평, 남제주군은 평균 80평 순이다. [표Ⅱ-5]에서와 같이 제주시 및 서귀포시 농감협 선과장수는 적지만, 면적은 제주도 감귤선과장 평균 면적보다 26~36% 정도 넓다. 한편 남제주군은 농감협 선과장수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지만, 제주도 감귤 선과장 평균 면적보다 25평(24%) 정도가 적다.

한편, 상인선과장 면적을 보면 [표Ⅱ-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균 선과장 면적은 103평으로 제주도 감귤 평균 선과장 면적과 비슷하다. 지역별 평균 면적을 보면 북제주군이 72평, 남제주군이 76평, 제주시가 98평, 서귀포시가 126평이다. 서귀포시 상인선과장만이 제주도 평균 선과장 보다 높고 나머지 지역의 선과장은 면적이 적다.

즉, 농감협선과장이 상인선과장 면적보다 대체적으로 높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 제주시 등 시지역 선과장 면적이 군지역 보다 월등히 높다.

[표Ⅱ-6] 감귤선과장 지역별 및 구조별 평균 규모 및 개수 (845개 선과장 조사)

구조	지역	농감협 선과장								상 인 선과장		합 계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평균 규 모(평)	개 수	평균 규 모(평)	개 수
		평균 규 모(평)	개 수	평균 규 모(평)	개 수	평균 규 모(평)	개 수	평균 규 모(평)	개 수				
가건물		122	19	49	7	141	43	72	35	112	156	99.2	260
판넬조		198	10	144	49	148	28	110	56	112	52	120	195
벽돌		148	2	78	12	150	1	56	52	59	10	98.2	77
블럭		108	8	83	49	90	6	71	42	64	40	83.2	145
석조		90	1	100	1			90	5	83	3	90.8	10
콘크리트		154	9	111	20	150	1	75	5	340	2	166	37
합석		171	7	70	2	109	10	57	21	106	78	102.6	118
철골조		80	3									80	3
평균 선과장 규모 (105=100환산)		143 (136)		106 (101)		135 (128)		80 (76)		103 (98)		105 (100)	

자료: 제주도, 감귤선과장 실태조사 대장, 2000

제주도청에서 조사한 감귤선과장 실태조사를 참고로하여 감귤선과장 916개 중 867개 선과장 면적별 규모를 확인해 보면 50~99평이 373개(43.0%)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100~149평으로 187개(21.6%)를 차지하고 있다. 150평 미만의 선과장이 전체 선과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100 평 사이에 선과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00평 이상 대형 선과장은 대부분 농감협 직영선과장으로서 34개(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평 미만의 소형 선과장은 113개(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150평 미만의 선과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선과장의 협소화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비파괴선과기를 비롯한 대형선과시설 도입이 불가능하다.

[표Ⅱ-7] 감귤선과장 면적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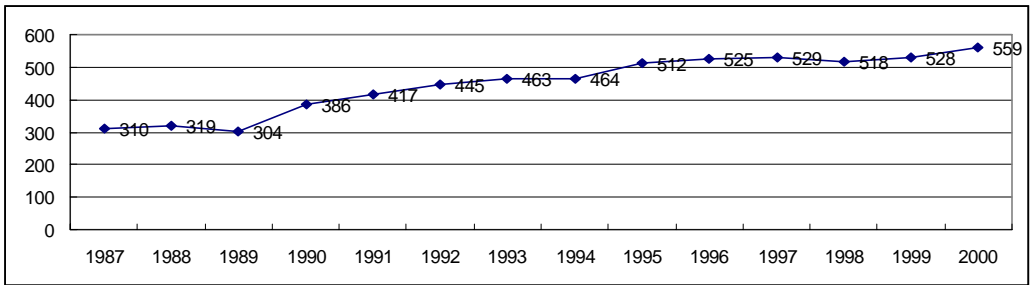
구분	합계	0~ 29평	30~ 49평	50~ 99평	100~ 149평	150~ 199평	200~ 299평	300~ 399평	400~ 599평	600평 이상
개수	867	21	92	373	187	104	56	24	6	4
(%)	(100.0)	(2.4)	(10.6)	(43.0)	(21.6)	(12.0)	(6.5)	(2.8)	(0.7)	(0.4)

자료: 제주도, 감귤선과장 실태조사 대장, 2000

(2) 감귤선과장 변화 추이

농·감협 선과장 변화 추이를 보면 '8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89년 약간 감소하였다. '90년에 '82개가 새로 생겨난 후 '91년부터 '99년까지 10~30개씩 증가하였다. '00년 현재 559개의 농감협 선과장이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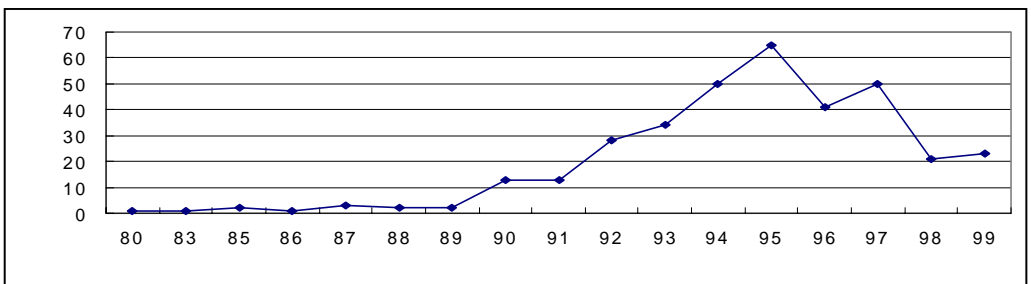
[도Ⅱ-3] 연도별 농·감협 선과장 변화 추이 (단위: 개)



자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2001

상인선과장 연도별 현황을 보면 '80년도부터 '89년까지는 한해에 1~2개 정도씩 설치되고, '90년~'93년까지는 한해에 10개 이상씩 설치되었다. '94~'97년까지 한해에 50개 이상의 상인선과장이 생겨났다. 이때 생긴 상인선과장이 상인선과장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감귤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Ⅱ-4] 연도별 상인선과장 설치 현황



자료: 제주도, 감귤선과장 실태조사 대장, 2000

(3) 농감협 작목반 현황

감귤작목반 가입비율을 보면 '00년도 재배농가 36,590명 중에 반원수가 13,717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감귤작목반 시군별 가입비율을 보면 [표Ⅱ-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제주군이 50.1%로 가장 높고, 제주시가 36.4%, 남제주군은 35.8%, 서귀포시는 17.1%를 차지하고 있다. 북제주군과 서귀포시 가입비율 차이는 무려 33%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평균 작목반원 현황을 보면 약 25명으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약 29.3명으로 가장 높고, 서귀포시가 27.3명, 북제주군이 26.3명, 남제주군이 24.3명이 가장 낮다.

감귤작목반 가입률이 미약하고 평균 작목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조직기반이 취약하다. 그로 인하여 계획 출하에 의한 출하조정이 어렵고 물량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지 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장교섭력 약화되고 가격 등락폭이 심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없다.

[표Ⅱ-8] 지역별 감귤작목반 현황 (단위: ha, 호, %, 명)

구분	전체(A)		작목반(B)			B/A(가입비율)		작목반당 평균	
	농가수	면적	작목반수	반원수	면적	농가수	면적	반원수	면적
제주시	4,517	3,123	56	1,643	2,445	36.4	78.3	29.3	43.7
서귀포시	10,838	5,409	68	1,858	2,217	17.1	41.0	27.3	32.6
북제주군	6,975	6,664	133	3,497	4,159	50.1	62.4	26.3	31.3
남제주군	13,725	10,585	202	4,910	5,903	35.8	55.8	24.3	29.2

자료: 제주도 지역농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고성보, 농정연구포럼, 1999, 8

농감협 감귤작목반 읍·면당(시포함)현황을 보면 [표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 시, 7개 읍, 3개 면의 157개 리(洞)에 감귤작목반이 조직되어 있다. 12개 읍·면(시 포함)에서 제주시가 25개 리(15.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귀포시와 애월읍이 20개(12.7%)이다. 한편 안덕면이 7개 리(4.5%)로 가장 적고, 구좌읍, 한경면, 표선면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리가 10개 이하이다.

각 읍·면당 평균 작목반수를 보면 리(洞)당 평균 3.3개 작목반이 있는데, 남원

읍이 평균 5.8개로 가장 많고 표선면이 5.4개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 시부터 남제주군 동쪽지역(남원읍, 표선면, 성산읍)까지는 里(洞)당 평균작목반수가 월등히 높다. 반면에 里(洞)당 평균 작목반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구좌읍으로서 평균 里(洞)당 1.3개이고, 그 다음으로 제주시, 대정읍이다.

[표Ⅱ-9] 감귤 읍·면당 평균 작목반수 (단위 : 개)

구 분	합계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	서귀포시
평균 작목반수(里, 洞)	3.3	2.5	2.3	3.3	3.8	1.3	4.5
설치된 里(洞)수 (%)	157 (100.0)	10 (6.4)	20 (12.7)	9 (5.7)	10 (6.4)	8 (5.1)	20 (12.7)
		남원읍	표선면	안덕면	대정읍	제주시	성산읍
평균 작목반수(里, 洞)		5.8	5.4	2.4	2	2	4.3
설치된 里(洞)수 (%)		15 (9.6)	9 (5.7)	7 (4.5)	11 (7.0)	25 (15.9)	13 (8.3)

자료 :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시군별 감귤작목반 현황, 2001
 제주도, 감귤선과장 실태조사·대장, 2000
 감협, 감협작목반 현황, 2001

里(洞)별 농감협 작목반 현황을 보면 里(洞)당 1개 감귤작목반만 있는 곳은 33개 里(洞)로 전체에서 21%를 차지하고 있다. 2개 작목반 있는 里(洞)가 40개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 73개 里(洞)으로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구좌읍, 대정읍, 한림읍, 제주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감귤재배 면적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작목반 계통출하비율은 높지만 총출하량 규모는 적다.

감귤작목반이 6개 이상인 곳은 11개 里(洞)으로 전체 7%를 차지하고 있는데 8개 이상 작목반인 있는 里(洞)는 13개 里(洞)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이상 작목반인 있는 里(洞)도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이 분포하고 있는데, 감귤재배 면적은 넓고 생산량은 많으나 감귤작목반이 里(洞)별로 선진부터 기초 작목반까지 작목반수가 너무 많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평균 작목반원이 열악하고, 계통출하보다는 상인출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마을당 작목반원이 열악하고, 대부분 소규모 선과장 ([표Ⅱ-6]참조)에서 처리규모가 영세([표Ⅱ-13] 참조)한 농감협 작목반이 里(洞)별로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로 경쟁함으로써 체계적인 출하조절을 기대할 수가 없다.

[표Ⅱ-10] 里(洞)별 농·감협작목반수 현황 (단위: 개)

작목반 수	합 계	1이하	2	3	4	5	6~7	8이상
里(洞)수 (%)	157(100.0)	33(21.0)	40(25.5)	29(18.5)	15(9.5)	16(10.2)	11(7.0)	13(8.3)

자료 :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시군별 감귤작목반 현황, 2001
 제주도, 감귤선과장 실태조사 대장, 2000
 감협, 감협작목반 현황, 2001

2) 선과기 현황

감귤선과기 현황을 보면 '00년도 현재 931개 선과기가 있는데, 출하단체별로 분류해 보면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가 561개(60.2%)이고 상인단체가 347개(37.3%), 영농법인이 23개(2.5%)이다.

작업형태별 비율을 보면 자동선과기가 24%, 반자동선과기가 54%, 수동선과기 22%로 자동선과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수동 및 반자동 선과기가 7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하단체별로 선과기 작업형태 비율을 살펴보면,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는 자동화선과기가 27.8%, 반자동선과기가 43.9%, 수동선과기가 28.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인단체 선과기의 경우 자동선과기가 15.2%, 반자동선과기가 73.5%, 수동선과기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 상인단체는 자동 및 수동선과기에 비해 반자동선과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는 아직까지도 반자동 선과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자동선과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인단체보다 월등히 높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과기 규격별 비율을 보면 3.5톤과 4.5톤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3.5톤 미만의 소형선과기가 36.3%로 차지하는 반면, 6톤 이상의 중대형화 선과기가 11.8%밖에 안된다.

출하단체별 선과기 규격 비율을 살펴보면 농감협작목반 선과기는 3.5톤과 4.5톤이 61%, 3.5톤 미만은 23.2%, 6톤 이상은 36.3%를 차지하는 있다. 상인선과장 선과기는 3.5톤과 4.5톤이 36.3%, 3.5톤 미만 선과장이 59.7%, 6톤 이상은 3.4%를 차지하고 있다. 농감협 선과장은 중대형화 선과기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반면 상인선과장은 아직까지 소형선과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영농법인은 중대형화 선과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표Ⅱ-11] 감귤선과기 출하단체별 시설현황 (단위 :개)

구분	선과기 설치			작업형태별			규격별(톤/시간당)						
	계	시설	노지	자동	반자동	수동	1이하	1.5	2.5	3.5	4.5	6	7.5이상
계	931	83	848	224	505	202	23	137	178	254	229	60	50
(%)	(100.0)	(8.9)	(91.1)	(24.1)	(54.2)	(21.7)	(2.5)	(14.7)	(19.1)	(27.3)	(24.6)	(6.4)	(5.4)
농협	335	46	289	94	146	95	5	34	42	103	94	28	29
감협	226	19	207	62	100	64	8	16	25	93	54	17	13
법인	23	5	18	15	4	4	1	1	3	8	4	7	
상인	347	13	334	53	255	39	10	86	111	55	73	11	1

자료: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99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석」

3) 선과장 처리(출하) 실태

제주도 전체 선과장당 평균 선과량은 평균 약 4만 상자(6천톤)처리하고 있다. 영농법인은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는데, 생긴지 얼마 안된 선과장으로 선과장 시설을 현대화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감협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 및 상인단체는 평균보다 낮다.⁸⁾

선과기 대당 평균처리 현황을 보면 선과장당 평균출하량과 비슷한데 영농법인이 가장 높고, 다음이 감협이고 농협 및 상인단체가 평균보다 낮다.

8) 유영봉·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33

[표Ⅱ-12] 출하주체별 감귤선과장 및 선과기 출하처리실태

구분	출하량		선과장		선과장당 평균출하량		선과기		대당 평균처리량	
	천톤	%	개	%	톤/개소	전체평균=100	대	%	톤/대	전체평균=100
전체	542.4	100	916	100	592.2	100	931	100	583	100
농협	190.7	35.2	329	35.9	579.5	98	335	36	569	98
감협	148.7	27.4	230	25.1	646.6	109	226	24.3	658	113
납세조합	127.2	23.5	224	24.5	567.9	96				
청과조합	57.5	10.6	108	11.8	532.2	90	347	37.3	532	91
개인	-	-	9	1.0	-	-				
영농법인	18.3	3.4	16	1.7	1145.4	193	23	2.5	797	137

자료 : 99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 제주도.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 2000.7

선과장별 1일평균 출하실태를 보면 선과장 가동일 120일로 가정했을 때 전체 선과장 1일 평균 농감협이 2,690톤, 수집상이 2,359톤으로 하루 평균적으로 5,040톤이 출하되었고 선과장 당 1일 평균 선과량은 농감협이 4.85톤, 수집상 5.80으로 전체 평균 5.25톤이다. 선과장 당 취급량은 1일 평균 15kg 상자 기준 평균 350상자이다. 농감협이 323상자, 수집상인 386상자인데 이것을 1번과부터 9번과로 분류하면 각번 규격이 10-70상자 미만이다.

선과장당 출하실적 비율을 보면 평균출하량이 6천톤(4만상자)이다. 450(3만상자)~900천톤(6만상자)이 30.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50(1만상자)~449톤(3만상자)이 27.3%를 차지하고 있다. 900천톤(6만상자) 이하의 출하실적 비율을 보이는 선과장이 77.9%로서 현재의 선과장 처리규모를 볼 때 매우 영세하다. 1,500천톤(10만상자) 이상 처리규모 비율을 보면 7.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⁹⁾

9)유영봉·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33

[표Ⅱ-13] 출하주제별, 출하실적 규모별 감귤선과장 분포

구 분	감협	농협	영농법인	상인	합계
실 적 없 음	12(5.9)	19(6.1)	-	22(6.7)	53(6.1)
1 ~ 149톤	31(15.3)	44(14.1)	3(13.0)	41(12.5)	119(13.7)
150 ~ 449톤	57(28.1)	93(29.8)	4(17.4)	83(25.2)	237(27.3)
451 ~ 899톤	55(27.1)	81(26.0)	4(17.4)	127(38.6)	267(30.8)
900 ~ 1499톤	31(15.3)	44(14.1)	7(30.4)	44(13.4)	126(14.5)
1500 ~ 2249톤	15(7.4)	29(9.3)	2(8.7)	11(3.3)	57(6.6)
2250톤 이상	2(1.0)	2(0.6)	3(13.0)	1(0.3)	8(0.9)
합 계	203(100)	312(100)	23(100)	329(100)	867(100)

자료: 제주도, 감귤출하자 실태조사 대장 2000

주) 1. '99년산 선과실적 기준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비중

3. 감귤출하 및 유통에 대한 의향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현재의 감귤출하 및 산지유통의 실태 분석 및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귤출하체계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목반장과 생산농가를 조사하였다. 감귤 출하량, 출하시기, 출하처 등에 관한 의사결정, 선별 및 등급결정 방법, 출하실태, 감귤유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생산농가는 총 59개 농가를 조사하였는데 제주시가 5개 농가, 북제주군이 11개 농가, 남제주군이 43개 농가이다. 작목반 가입여부를 보면 작목반원이 34명, 비반원이 25명이었고, 면적별로는 천평 이하 6명, 2천평 이하 16명, 3천평 이하 10명, 4천평 이하 9명, 5천평 이하 9명, 6천평 이상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작목반장 조사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설정하였는데 서귀포시가 9명, 남제주군 14명, 북제주군이 7명, 제주시가 3명이다. 발전단계별로 보면 선진작목반 20개, 일반작목반 15개, 기초작목반 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2) 조사 결과

감귤출하시기 결정방법에 대한 결과는, 조사대상 중 87.4%가 개별출하농가가 결정한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 작목반원 합의는 10.5%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감귤출하시기는 거의 출하농가 스스로 출하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표Ⅱ-14] 감귤출하시기 결정 주체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합계	출하농가	작목반 합의	기타
작목반장 응답수(%)	36(100.0)	34(94.4)	2(5.6)	0(0.0)
일반농가 응답수(%)	59(100.0)	49(83.1)	8(13.6)	2(3.4)
합 계(%)	95(100.0)	83(87.4)	10(10.5)	2(2.1)

감귤출하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 감귤가격 때문이라는 대답이 74.5%를 차지하고 있고, 대목출하(설날, 크리스마스 등)가 11.9%를 차지하고 있다. 저장고 부족 5.1%, 부패과 증가는 6.8%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 대부분은 감귤 출하시기를 정할 때 가격 등락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데, 개인출하자 스스로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때 홍수출하 함으로써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그리고 설날 및 크리스마스, 신정 등 대목에 집중출하 함으로써 가격이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

[표Ⅱ-15] 감귤 출하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일반농가)

구 분	합계	감귤가격	부패과 증가	대목출하	저장고 부족	기타
응답수(%)	59(100.0)	44(74.5)	4(6.8)	7(11.9)	3(5.1)	1(1.7)

감귤가격정보 획득방법에 대한 결과를 보면, 농감협 가격정보에서 얻는다는 비율이 55.9%,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비율이 25.5%, 주위사람들에게서 얻는다는 비율이 13.5%, 상인이 5.1%이다. 상인보다는 농감협에서 가격정보를 얻는다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별, 날짜별로 가격을 알 수 있는인터넷 및 대중매체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표Ⅱ-16] 감귤 가격정보 획득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합계	TV, 신문	인터넷	농감협 가격정보	주위 사람들	상인
응답수(%)	59(100.0)	10(17.0)	5(8.5)	33(55.9)	8(13.5)	3(5.1)

감귤출하처 결정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체결정한다는 비율이 46.3%, 반장과 농가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15.8%, 전속거래처가 12.6%, 기타가 25.3%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출하체계는 감귤의 출하처 결정에 생산농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일반농가 조사에서는 개별농가가 결정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반장+농가 비율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작목반장 조사에서는 반장과 농가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개별농가가 결정한다는 비율이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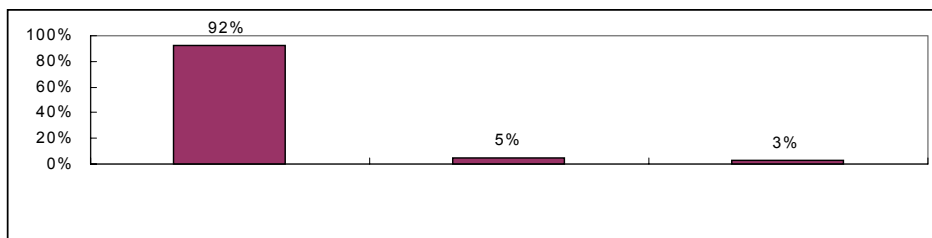
[표Ⅱ-17] 감귤 출하처 결정 응답 결과

구 분	합 계	반장+농가	자체 결정	전속거래	기타
일반농가	59(100.0)	1(1.6)	37(63.0)	5(8.4)	16(27.0)
작목반장	36(100.0)	14(39.0)	7(19.4)	7(19.4)	8(22.2)
합 계	95(100.0)	15(15.8)	44(46.3)	12(12.6)	24(25.3)

감귤출하량 결정방법에 대한 결과는 [도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생산자가 자체 판단해서 반장에게 연락하고 있다는 비율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무출하량 및 사전 물량조사 후 반장이 출하량을 정해서 통보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결론적으로 개인출하자가 출하량을 결정함으로써 계획적인 출하 및 작목반에서의 출하조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체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도 II-5] 감귤출하량 결정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일반농가)



감귤출하시 출하자 표기에 대한 결과는 개인고유상표 비율이 94.7%, 작목반명 표기 3.2%, 작목반장 표기 2.1%이다. 개인생산자가 출하처, 출하시기, 출하량, 선별, 정산 등 모든 출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포장상자에 출하자 표기도 개인명의로 대부분이다. 작목반 단위의 선과이지만 도매시장 경매 및 정산과정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행 출하체제가 개별단위의 출하형태라는 것이다.



[표 II-18] 감귤출하시 출하자 표기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합 계	작목반명	출하농가(개인 고유상표)	작목반장
일반농가(%)	59(100.0)	3(5.1)	54(91.5)	2(3.4)
작목반장(%)	36(100.0)	0(0.0)	36(100.0)	0
합 계(%)	95(100.0)	3(3.2)	90(94.7)	2(2.1)

감귤 선별시 선별 결정여부에 대한 결과는 개인이 직접 선별하는 작목반이 67%를 차지하고 선별사를 둔다는 작목반이 33%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생산자가 직접 선별을 함으로서 자기 감귤에 대한 애착 때문에 공정한 선별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표 II-19] 감귤선별시 결정 주체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합 계	개인이 선별	선별사
작목반장 응답수(%)	36(100.0)	24(66.7)	12(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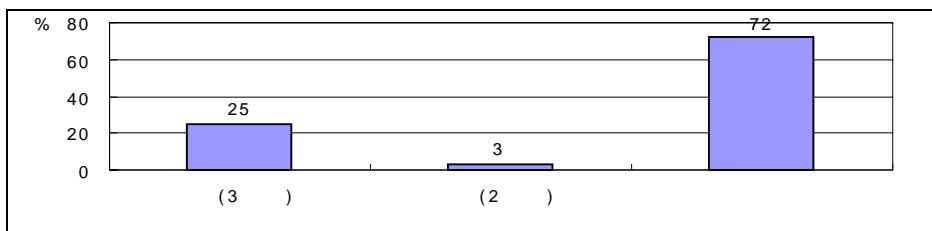
감귤 선별작업에서 출하농가 관여여부에 대한 결과는 생산농가가 관여한다는 비율이 95.8%, 비관여 비율이 4.2%로 조사되었다. 앞의 표Ⅱ-19에서 선별사가 선별을 한다는 작목반이 33%나 되었는데도, 작목반장 조사에서 선별시 생산농가 관여여부에서 개인출하자가 관여한다는 비율이 91.7%나 되었다. 이것은 선별사가 선별을 하더라도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함으로써 공정한 선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출하자가 자신의 상품 선별에 관여함으로써 공정한 선별 및 등급결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표Ⅱ-20] 감귤선과시 출하농가 선별 관여 여부 응답 결과

구 분	합 계	관 여	비 관 여
일반농가(%)	59(100.0)	58(98.3)	1(1.7)
작목반장(%)	36(100.0)	33(91.7)	3(8.3)
합 계(%)	95(100.0)	91(95.8)	4(4.2)

감귤 작목반 등급구분 여부에 대한 결과는 크기별로 등급을 결정한다는 작목반이 72%, 자체 등급규정을 만들어서 선별 및 등급을 결정한다는 비율이 27%를 차지하고 있다. 감귤등급 구분에는 2등급이 3%, 3등급이 25%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감귤작목반은 당도 및 외향검사에 의한 등급을 정하여 출하하기보다는 개인출하자에 의한 선별하고, 선과 크기별로 출하함으로써 크기위주의 가격차별화만 존재할 뿐 품질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Ⅱ-6] 감귤 작목반 등급 구분 여부 응답 결과 (작목반장)



조사농가의 감귤 출하형태를 보면 계통출하 비율이 59%이고, 상인출하 비율이 31%, 직거래 6%, 포전거래 4%로 조사되었다.

계통출하를 주로 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를 보면 46.5%가 가격위험을 줄이기 위해(분산판매)출하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자가 출하처 및 출하량, 출하시기를 정하는 개별단위 작목반 출하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 권유에 의한 비율이 14.3%, 상인 판매 보다 높은 가격은 12.5%, 의무출하량이 7.1%, 가공용을 팔기 위해서가 7.1%, 품질이 나빠서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표Ⅱ-21] 감귤 계통출하를 주로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응답수(%)
분산판매(가격위험 최소화)		26(46.5)
상인판매보다 높은 가격		7(12.5)
조합 권유		8(14.3)
품질이 나빠서		3(5.4)
반원합의에 의해서(의무출하량)		4(7.1)
가공용을 팔기 위해서		4(7.1)
기타		4(7.1)
합	계	56(100.0)

상인출하를 주로 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는 계통출하시 가격불안정 때문이라는 대답이 51.1%, 가격홍정을 할 수 있다는 비율이 26.7%, 노동력이 부족해서 계통출하 대신 상인출하를 한다는 비율이 22.2%차지하고 있다. 가격 때문에 상인출하를 한다는 비율이 77.8%를 차지하고 있다.

상인 판매시 정산방법은 판매 후 즉시가 57.2%로 가장 높고, 먼저 몇 % 받고 나중에 나머지를 받는 방식이 20.0%를 차지하고 있다.

[표Ⅱ-22] 감귤 상인출하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구 분	응답수(%)
계통출하시 가격불안정 때문에	23(51.1)
노동력 부족	10(22.2)
가격을 흥정할 수 있어서	12(26.7)
합 계	45(100.0)

감귤 유통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는 출하조절체계 취약 및 상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상품 감귤처리 미흡 및 소규모 작목반을 이용한 개별출하 체제, 과도한 물류비 부담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농가들은 대부분 감귤유통구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감귤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표Ⅱ-23] 감귤 유통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응답수 (%)			
	합계	1위	2위	3위
소규모 작목반을 이용한 개별출하 체제	21(11.9)	7(11.9)	7(11.9)	7(11.9)
출하조절체계 취약	39(22.0)	15(25.4)	16(27.1)	8(13.6)
비상품 감귤처리 미흡	36(20.3)	12(20.3)	13(22.0)	11(18.6)
상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부재	34(19.2)	15(25.4)	7(11.9)	12(20.3)
산지유통의 농·감협 삼중구조	22(12.4)	4(6.8)	6(10.2)	12(20.3)
과다한 물류비 부담	24(13.6)	6(10.2)	10(16.9)	8(13.6)
기 타	1(0.6)	0(0.0)	0(0.0)	1(1.7)
합 계	177(100.0)	59(100.0)	59(100.0)	59(100.0)

3) 산지유통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요약

① 현행 출하체계는 기본적으로 개별생산자가 출하량, 출하시기, 출하처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농가 대부분은 가격이 등락과 대목출하에 따라 시기 및 출

하량을 결정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하여 홍수출하의 우려가 있고 출하조절이 어렵고 서로 경쟁으로 인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출하조절을 통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개별적인 시장접근 보다는 공동출하에 의한 계획적인 출하조절을 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선별 및 등급결정에 있어서 출하농가가 선별을 직접 관여하고 있고 선별사를 두더라도 개인이 선별에 관여함으로 인해 공정한 선별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등급결정에 있어서 크기규격으로만 결정함으로 크기위주의 가격차별화만이 존재하고 있다. 선과장별로 당도 및 상품 품질에 따라 자체 규정에 의해서 상품, 중품, 하품 등으로 구분하는 선과장도 있지만 그 수가 적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감귤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별선별이 아닌 전문 선별사에 의한 공동선별(개인 참여 금지) 과 크기위주에 선별이 아닌 품질위주의 선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크기위주의 품질관리등급을 품질등급과 크기등급으로 명확하게 정비함으로 인해 등급구분이 균일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③ 계통출하 및 상인출하를 가격 불안정 및 가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현행출하체제로는 시장에서 완전경쟁이므로 가격결정력은 수요자(소비자)에게 있고, 소비자유통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적 산지로서의 가격결정력을 생산자(공급자)쪽으로 유인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소비자유통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출하조절과 고품질 감귤의 지속적인 출하를 통한 가격 및 소득향상에 노력해야겠다.

④ 감귤생산자들도 현재의 감귤유통체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하조절체계 취약 및 소규모 작목반을 이용한 개별출하 체제, 과도한 물류비 부담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규모 작목반에 의한 공동정산제를 시행함으로서 계획출하에 의한 출하조절, 품질향상, 유통비용절감, 시장교섭력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Ⅲ 감귤 산지유통체계의 유형화 및 운영사례

1. 감귤산지유통체계 유형화

감귤작목반의 선과장 운영 및 출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일반·선진작목반 및 공동정산제 시범작목반 등 12개 작목반¹⁰⁾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감귤생산관리에서 선별-출하-정산까지 모든 출하단계별 형태를 구분화하여 개별출하방식과 공동출하방식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5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Ⅲ-1] 감귤 단계별 개별출하방식과 공동출하방식 체계 비교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생산관리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공동방제→공동정산 (농협출하센터)
수확	생산자·상인		작목반 (개별)	작목반 (공동)	
수집	상인	농협 (개별)			
포장·선별					
판매 수송					
정산	개별출하방식		공동출하방식		

1) 개별출하방식

개별출하방식은 유형1 및 유형2가 해당되는데, 유형1은 상인출하로서 생산농가

10) 조사작목반 지역별 분포는 제주시 2개, 북제주군 1개, 서귀포시 5개, 남제주군 4개소이다. 그리고 발전단계별 형태를 보면 일반 작목반 4개소, 선진작목반 8개(공동정산제 시범작목반 3개)이다.

는 포전매매시는 생산이후 정전판매 및 창고떼기는 생산 및 수확 이후부터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즉 상인에 판매한 순간 즉 유통부터 정산까지 상인이 뒀이 된다. 상인에 의한 출하-선별-정산형태이다.

유형2는 작목반을 통한 개별출하 방식으로써 개별출하자가 출하-선별-정산 까지 전부 관여되어 있는 형태이다. 개별생산농가가 생산관리와 수확을 직접 한다음 감귤 출하시 출하처, 출하시기, 출하량 및 선별에 직접 관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다. 대금정산은 농감협에 의해서 개별출하자의 출하물량에 의해 개인출하자별로 입금액을 정산하여 주고 있다.

2) 공동출하방식

공동출하방식에는 유형3, 유형4, 유형5가 해당된다.

먼저, 유형3을 보면 작목반을 통한 공동출하-공동선별-개별정산의 형태이다. 생산자는 생산 후 수확까지만 관여하고 수확 이후 수집부터 수송까지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대금정산은 농감협에 의한 개별생산자 출하량에 따라 개인출하자별 입금액을 정산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많은 사람들이 공동정산제 작목반으로 인식하고 있다.¹¹⁾

유형4는 작목반을 통한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정산제의 형태이다.

공동정산제란 다수의 개별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주별이 아닌 상품의 등급별로 구분 관리, 판매하여 그 등급에 따라 비용과 대금을 평균하여 농가에 정산하는 방법인데, 일정한 기간 내에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 불구하고 총 판매 대금을 등급별 출하물량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¹²⁾

생산자는 생산관리 및 수확까지만 관여하고 수집부터 출하-정산까지 공동으로

11) 유영봉, 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63

12) ·공동정산제 장점에는 ①개별농가의 위험분산 ②대량거래의 유리성 ③출하조절 용이

④공정한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 ⑤도매시장 등 거래시간 단축 ⑥판로의 다양화

⑦유통변화에 신속한 대응

단점으로는 ①재배기술 차이 ②소득과 비용이 시기적 불일치 ③도매시장의 오랜 거래 관행

④ 대금정산 지연

· 공동정산제 정산식

행하여지고 형태이다.

제주도 감귤작목반 중 3개 작목반이 조사되었으나 남원농협 신성작목반이 가장 근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형5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공동출하-정산제로서 공동방제-수확-수집-선별-출하-정산까지 모든 활동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현재 제주도 감귤작목반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썬키스트와 같은 대규모 생산자 조직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2. 유형별 출하방식 운영사례

1) 유형1

유형1은 상인에 의한 선별-출하-정산의 형태이다.

상인¹³⁾의 경우 감귤생산자로부터 감귤을 수집하고 본인의 선과장에서 선별 및 포장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 전속거래처 및 도매시장 등에 상인 자신이 출하시기 및 출하량을 결정하여서 출하하고 있다.

먼저 수집형태를 보면 포전매매, 정전판매, 창고떼기로 수집을 하고 있다.¹⁴⁾

$$\text{농가별 배분금액} = \frac{\text{등급별 판매대금} - \text{판매제비용}}{\text{등급별 출하물량}} \times \text{농가의 등급별 수량}$$

(http://www.nonghyup.com/information/newInfo/jackmok/body_jackmok_cooper_20011010.htm)

13) 감귤상인조합으로는 북부청과물판매업조합과 남부청과물판매업조합, 제주도감귤청과야채납세조합이 있다. 북부청과물조합은 제주시, 북제주군 관할지역으로 55인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급물량은 2.5만톤 정도이다. 남부청과물조합은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관할지역으로 106인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급물량은 3.2만톤 정도이다. 납세조합은 연간 취급물량이 12.7천톤인데 조합과 조합원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http://www.afmc.co.kr/>)

14) 상인의 감귤 구매는 발매기 거래(포전거래)가 16.8%, 수확 후 현장구매(정전판매)가 51.7%, 저장감귤 구매(창고떼기)가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부청과물조합은 발매기 거래를 남부조합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이 하고 있는 반면 남부청과물조합은 저장감귤 구매(창고떼기)가 높고, 납세조합은 현장구매가 높다. (감귤생산·유통개혁 자료, 감귤유통개혁기획단, p23-27)

상인이 감귤의 품질을 보고 구매 및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포전거래 및 창고때기 수매는 투기성 경향이 강하여서 나중에 가격이 하락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개 거래처의 시세를 감안하여 농가와 가격절충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다.

선별형태를 보면 고용인부에 의해서 선별을 하고 있지만 상인이 선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한편 출하처는 자신들의 경험과 전속거래처 등과 연락을 통해 상인 스스로 출하처 및 출하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대개 유사도매시장(위탁상)위주로 출하하고 있으나 현재는 공판장 및 도매시장 출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장상자표시는 계통출하의 포장상자표시와 같고 포장상자를 구입하는 비율을 보면 남부·북부 청과물조합, 남세조합 모두 판매조합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다.

운송계약은 남부·북부 청과물조합, 남세조합에서는 조합에서 계약한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기도 하는데 비율을 보면 공동운송이 80%, 개별계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대금 정산 방법은 대부분 판매 후 즉시 받는 방법, 구입 계약시 30~50%를 먼저 지급하고 작업 후(출고 후)에 70~50%를 지급 받는 방법,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전액지급 받는 방법, 전액현찰 지급후 판매하는 방법이 있으나 50%이상이 판매 후 즉시 대금을 받고 있다.¹⁵⁾

상인출하는 감귤출하개시 일부터 출하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출하함으로써 계통출하보다 출하기간이 길다.

상인 출하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전속거래처 및 다양한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출하시기, 출하량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속거래처를 제외한 시

15)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결과(Ⅱ.3.1) 상인판매시 대금 정산방법 조사결과, 판매 후 즉시 지급받는 비율이 57.2%를 차지하고 있고, 구입 계약시 30~50%를 먼저 지급 받고 작업 후(출고 후)에 70~50%를 지급 받는 방법 비율이 20.0%를 차지하고 있고, 판매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전액 지급받는 방법이 17.1%, 기타 5.7%로 50% 이상이 감귤 판매 후 대금을 받고 있다.

장에서 상인과 생산농민들의 출하가 완전경쟁에 가깝기 때문에 계획출하 및 출하조정이 어려워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유형2

유형2는 작목반을 통한 감귤출하로서, 출하자인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출하량, 출하시기, 출하처, 선별 등 거의 모든 출하단계에 관여를 하고 있는 개별선별-개별출하-개별정산의 형태이다. 대부분 농감협 작목반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2에 속한 작목반 중 2개의 작목반을 사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표Ⅲ-1]과 같다. 해안작목반 및 영산작목반을 조사하였는데, 모두 생산관리 및 수확은 개별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감귤수집형태를 보면 1-2일전에 반장에게 연락을 하고 생산자가 운반해 오면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다. 감귤선별형태를 보면 두 작목반 모두 생산자가 직접 선별을 하고 있으며, 감귤등급은 당도검사는 하지 않고 크기별에 의한 등급결정만 하고 있다. 출하처를 보면 두 작목반 모두 주로 개별출하자가 결정하고 있으며, 반장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반원들에 대한 의무출하량을 보면 영산작목반은 생산량의 30%이지만 해안작목반은 없다. 감귤출하시 출하자 표기형태를 보면 두 작목반 모두 개인명의로 출하하고 있다. 정산은 경매 후 1주일 이내로 농감협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

해안 및 영산작목반은 생산자가 스스로 출하시기 및 출하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작목반 선과장에서 본인이 직접 선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출하처를 선택하고 있으며, 농감협은 농가별 입금액을 정산하는 정산대행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농감협 작목반 대부분이 유형2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생산자의 출하의사결정에 따라 출하량, 출하처, 출하시기가 결정되고 이것이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선별-개별출하-개별정산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귤출하에 있어 출하량 조절, 출하시기 조절, 출하처 조절 등 계획적인 출하 및 출하조정이 어렵다.

[표Ⅲ-1] 개별선별-개별출하-개별정산 작목반 사례

구분	해안감귤 작목반	영상 작목반
생산 및 수확	개별 생산관리 및 개별수확	개별 생산관리 및 개별수확
수집 및 출하량결정	· 반장에게 보고하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작업 · 개인 차량으로 운송 · 비반원도 참여 가능	· 반장에게 보고하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작업 · 개인 차량으로 운송 · 비반원도 참여 가능
선별 및 등급 결정	· 개인출하자가 선별 · 크기별로 구분	· 개인출하자가 선별 · 크기별로 구분
등급 비율	(상중하 등급이 없음)	상(3-5번과) 40% 중(2,6,7) 25%, 하(1,8,9) 35%
출하	· 의무출하량 없음 · 개인+반장이 출하처 결정 (주는 개인 출하자, 반장은 보조 역할) · 개인명의 출하	· 의무출하량 30% · 개인+반장이 출하처 결정함 (주는 개인 출하자, 반장은 보조 역할) · 개인명의 출하
정산	· 감협이 개인별 출하물량에 개인 통장으로 정산	· 농협이 개인별 출하물량에 개인 통장으로 정산

3) 유형3

유형3은 작목반을 통한 공동선별-공동출하-개별정산의 형태로써 감귤 수확까지는 대부분 개별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집부터 출하까지는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종 정산시는 개별생산자별로 정산이 되는 형태이다.¹⁶⁾

공동출하-공동선별-개별정산 형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5개 작목반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서귀포시 4개 작목반(중문동 2개, 효돈동 2개, 호근동 1개), 북제주군 1개 작목반(조천읍 1개)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생산관리에서부터 수확까지는 생산자가 대부분 개별작업을 하고 있었다. 감귤 수집 및 선과

16) 유형3 형태의 작목반은 89개로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는 작목반 중에서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하는 작목반을 조사한 결과이다. 출하단체별로 보면 농협이 52개, 감협이 30개, 법인 및 기타가 7개이다. 지역별로 보면 남제주군이 32개, 북제주군 27개, 서귀포시 27개, 제주시 3개이다.

량 결정방법을 보면, 도순작목반 및 하효작목반은 조가 편성되어 있어 각조에서 해당 날짜에 출하계획에 맞춰 출하하고 있다. 반면, 사장작목반, 호근번영작목반, 대성작목반은 생산자로부터 1주일 전에 출하신청을 받고 반장 및 총무가 일일출하계획에 의하여 2-3일전에 통보를 하고 있다.

등급결정은 각 작목반별로 자체 품질 및 크기 등급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등급표기를 하고 있다. 품질등급표기를 보면 4개 작목반은 3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호근번영작목반만 4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선별형태를 보면 5개 작목반 모두 반장 및 선별사에 의하여 당도 및 외향검사를 하고 있고, 선별사 2명(사장작목반은 선별사 1명과 공장장이 선별에 참여함으로써 2명이 선별)을 두고 철저한 선별을 하고 있다. 이유는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품질인증 농산물 및 표준규격출하 관련해서 품질인증 감귤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출하량을 보면 5개 작목반 모두 의무적으로 출하량이 정해져 있으나 출하량에 대해서는 각 작목반 별로 다양하다. 그리고 의무출하량을 어길시에는 제명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방안이 있다. 출하처 형태를 보면 5개 작목반 모두 반장 및 총무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그런 다음 생산자에게 출하처를 알려주고 생산자가 동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금정산의 경우 모두 개별정산을 하고 있는데, 농감협에서 개인별 출하물량에 따라 개인별 통장으로 정산을 해주고 있다.

공동출하-공동선별-개별정산의 형태(유형3)는 발전단계별로 보면 선진 형태의 농·감협작목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출하 및 공동선별을 통해 작목반 상표를 구축하고 이미지 향상과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나, 그 수가 적다. 그리고 정산시 개별정산으로 인하여 자기감귤에 대한 가격 및 애착 때문에 선별 및 출하시 생산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함으로써, 공동정산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표Ⅲ-2] 공동출하-공동선별-개별정산 작목반 사례 (2001년 2월 조사)

구분	도순작목반	하효작목반	사장작목반	호근번영작목반	대성작목반
생산관리 및 수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생산관리 · 개별수확 				
수집	조편성으로 선과량 결정하여서 수집			신청을 받고 반장, 총무 조정 후 생산자 통보	
등급 비율	3등급 향K(특) 65% 향(상) 27% 녹나무K(하) 8% (외향, 당도검사) 특품은 10도 이상-반장 및 선별사 합의	3등급 특(3-7) 59% 대(8,9) 24% 중(1,2) 17% (외향, 당도검사) 특품은 10도 이상-반장 및 선별사 합의	3등급 진(특) 60% 선(중) 30% 미(하) 10% (외향, 당도검사) 특품은 10도 이상-반장 및 선별사, 공장장합의	4등급 번영(특) 10% 용당, 호일(상) 75% 술학(하) 15% (외향, 당도검사) 특품은 10도 이상-반장 및 선별사 합의	3등급 특품 51%, 상품 31%, 보통 20% (외향, 당도검사) 특품은 10도 이상-반장 및 선별사 합의, 반원(대성)비반원(오이팔)
출하	의무출하량 천평당 천관 출하량 및 출하처는 반장, 총무 결정 비반원도 참여 개인명의로 출하	의무출하량 5천관 출하량 및 출하처는 반장, 총무 결정 비반원도 참여 개인명의로 출하	의무출하량 3천관 출하량 및 출하처는 반장, 총무 결정 비반원도 참여 개인명의로 출하	의무출하량 100% 출하량 및 출하처는 반장, 총무 결정 비반원도 참여 개인명의로 출하	의무출하량 100% 출하량 및 출하처는 반장, 총무 결정 비반원도 참여 개인명의로 출하
작업	선별사 2명, 기사 1명, 당번제 3명	선별사 2명, 잡부 3명, 당번 6명	선별사 1명, 공장장 1명, 당번제 2명	선별사 2명, 인증작업 2명, 잡부 1명, 당번 2명	선별사 2명, 기사 1명, 당번제 3명
정산	· 농감협이 개인별 출하물량에 따라 개인통장으로 정산				

4) 유형4

유형4는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정산의 형태로 감귤생산관리에서 수확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집에서부터 정산까지는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이 유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귤작목반 중 3개 작목반을 조사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남제주군 2개 작목반(남원읍 2개), 서귀포시 1개 작목반(효돈동 1개)이다.

(1) 제주감협 의귀작목반

의귀작목반은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정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다. 공동정산에 있어서 청주 및 창동 등 물류센터는 일일 공동정산제

를 실시하고 있고, 공판장은 개별정산을 하고 있는 변형화된 기초적인 형태이다.

의귀작목반은 그전부터 존속해오다가 98년에 회원 8명이 새롭게 재구성하여 현재 회원수는 11명으로서, 평균연령이 30대 중반인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귤 공동정산 동기는 농협창동물류센터의 권유로 시작을 하였다. 처음에 회원들이 공동정산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본인이 생산한 감귤을 최고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상품화하려고 함으로서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반장 및 총무의 노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Ⅲ-3] 제주감협 의귀작목반 공동출하-공동정산 사례 (2001년 2월 조사)

구 분	주 요 내 용
생산 및 수확	· 품앗이 형태에 의한 공동작업(병충해방제 및 수확시)
수집 및 출하량 결정	· 개인 및 작목반 차량으로 선과장까지 운송 · 주거래처(창동)와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일주일 전에 물량주문서를 통보 받으면 반장 및 감협직원이 출하계획을 세우고 조정하여 회원에게 출하량을 통보함
선별·등급결정	· 물량부족시 주위농가 순회 및 출하할선을 하고 비반원도 참여시킴 · 등급은 반장 및 선별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별은 선별사가 함
등급비율	· 3등급: 말3마리(상품) 93%, 말2마리(중품) 5%, 말1마리(하품) 2% -외향, 크기, 당도검사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함
출하	· 의무출하량은 노지 5천관 이상이고 이를 어길시 50만원 벌금 부과 · 출하처는 반장 및 감협직원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있으나 반원들은 자신의 감귤이 어느 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지 알게 됨. -출하처는 창동농협물류 40%, 전주공판장 30%, 구리도매시장 30% · 창동은 2kg망포장을 하여 다단식 목재상자에 넣어서 공동상표로 출하하고 있고, 전주 및 서울청과는 10kg, 15kg 포장상자에 개인명으로 출하하고 있음. - '01년산부터는 구리도매시장에 공동상표로 출하할 예정
정산	· 창동물류센터는 일일공동정산 · 전주공판장 및 구리도매시장은 개별정산 - '01년산부터는 구리도매시장에 일일공동정산

의귀작목반은 수확 및 생산에서부터 공동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하처 및 출하량을 반장 및 감협에서 조정하여 계획적인 출하 및 다양한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그리고 선별사에 의한 공동선별로 품질향상을 이루었고, 다단식 목재 상자를 이용함으로써 출하비용을 절감시켰다. 반면 상·하차 때의 기계화 및 고용인부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들고, 비반원 감골출하 문제, 소규모 반원에 의한 물량부족으로 주거래처에 대한 지속적인 상품 공급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류센터는 공동정산을 하고 있는데 정산기간이 하루라서 기간이 너무 짧고, 공판장 및 도매시장은 개별정산을 함으로써 공동정산제의 초기단계이면서 변형된 형태이다.

(2) 효돈농협 하효작목반

하효작목반은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정산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기초적인 형태이다. 10일 정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농협물류센터는 공동정산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방공판장은 개별정산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또한 개인명의 출하와 공동상표출하가 같이 사용되고 있어 완벽한 형태의 공동정산제는 아니다.

하효작목반은 회원 40명으로 개별정산의 형태로 존속해오다가 '98년 2월 회원 45명(40대 미만인 10명, 40~60대가 30명, 60대 이상이 5명)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여서 일일 공동정산제를 도입하였고, '00년산부터는 10일 공동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표Ⅲ-4] 효돈농협 하효작목반 공동출하-공동정산 사례 (2001년 2월 조사)

구 분	주 요 내 용
생산 및 수확	· 개별 생산관리 및 개별 수확
수집 및 출하량 결정	· 일년에 3차례 생산량 파악 후 반장 및 총무가 출하계획을 세움 · 개인 차량으로 선과장까지 운송 · 반원들은 10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출하를 해야하기 때문에 10일마다 출하물량을 보고 받고 반장 및 총무가 출하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한 다음 반원들에게 통보함 · 비반원 참여도 가능하나 현재까지 출하는 한번도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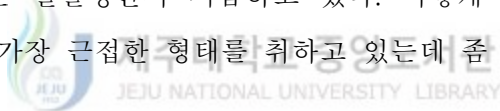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선별·등급결정	· 등급은 반장 및 선별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별은 선별사가 함
등급비율	· 3등급: 정품(특) 및 정일품(상)이 90%, 정이품(보통) 10% - 크기, 외향, 당도검사에 의하여 등급결정 - 정품 및 정일품은 10브릭스 이상, 정이품은 10브릭스 이하
출하	· 의무출하량은 생산량의 80% 이상이고 이를 어길시 제명처리 · 출하처는 반장, 총무와 농협직원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있으나 반원들은 자신의 감귤이 어느 시장으로 출하되는지 알게 됨. - 청주농협물류센터 30%, 창동농협물류센터 60%, 지방공판장 10% - 청주 및 창동농협물류센터는 정품과 정일품 등급을 2kg망포장(55%)과 15kg(35%) 상자로 파렛트로 출하하고 있고, 지방공판장은 정이품 등급을 15kg(10%) 상자로 콘테이너로 출하하고 있음 · 2kg망포장은 공동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나 15kg상자는 개인명의로 출하
정산	· '99년까지는 일일정산제에서 '00년산부터는 10일정산제로 바뀌었고 '01년산부터는 한달정산제를 도입할 예정임 · 공동정산제: 공동상표 출하, 개별정산제 : 개인명의 출하 · 공동정산시 선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10일 후 일괄정산시 등급별, 크기별 평균단가를 계산하여 개인별 출하량에 따라 정산

하효작목반은 '00년산 감귤 농가수취가가 관당 2,263원으로 제주도 평균 관당 농가수취가 2,003원보다 260원 정도를 더 받았다. 그리고 선별사에 의한 공정한 선별과 철저한 품질관리, 계획적인 출하와 지속적인 물량공급으로 농협물류센터에 90% 이상을 출하함으로써 가격향상과 신용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물류표 준화를 통한 팻릿 출하 및 시설자동화로 인건비가 감소되는 등 유통비용이 절감되었다. 반면 시설자동화 및 고용인부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들고, 농협물류센터 출하시 2kg망포장에서는 공동상표로 인한 공동정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15kg상자에서는 개인명의로 출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도매시장에서도 개인명의로 출하하고 있다. 그래서 하효농협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정산제와 비교할 때 도입 초기 단계라고 판단된다.

(3)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남원 신성작목반은 감귤작목반 중 가장 선도적인 작목반으로서 공동정산제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2개월 공동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성작목반은 2차에 걸친 예상 생산량 조사와 출하계획서를 작성하고, 생산한 감귤을 무조건적으로 출하해야 한다. 그리고 출하처, 출하량, 출하시기는 반장 및 검사원이 정하고 있으므로써 개인 출하자는 감귤을 선과장까지 운반한 후 수량 확인증과 선과 후 통보서만 받고 자신의 감귤이 어느 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또한 선별 및 등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별사에 의한 공정한 선별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선별 및 등급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다. 개인명의 출하는 전혀 없고 전부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팻출하를 하고 있다. 대금정산은 3번에 걸쳐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선도금으로 7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괄정산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신성작목반은 감귤작목반 중 공동정산제에 가장 근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IV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IV. 제주 감귤 작목반 공동정산제 실태분석

현재, 남원농협 신성작목반이 제주도 감귤 및 농산물 작목반 중 공동정산제에 제일 근접해 있다. 공동정산제를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되어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원 신성작목반의 공동정산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실태분석 및 작목반원 의향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남원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실태 분석

1) 공동정산제 도입 및 현황

남원농협은 공동정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감귤 작목반 중 지리적 여건이 인접해 있고 공동출하 및 작목반 활동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신성작목반과 신광작목반을 통합을 추진하였다. 통합에 의한 다량의 물량확보를 바탕으로 공동정산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출하를 선도할 수 있고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을 추진하면서 몇몇 작목반원들이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반대를 하는 등 약간의 진통도 있었으나, 작목반 합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목반 합병과 공동정산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및 회의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감귤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는 홍보와 설득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양 작목반의 공동재산과 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2000년 8월 17일 창립총회를 가져서 공동정산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작목반 명칭은 신성작목반으로 정하였고, 정관과 선별 및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도 정하였다.

신성작목반 현황을 보면 작목반원을 보면 60세 이상이 17명, 40~60세가 29명, 40세 미만이 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목반원 감귤 재배면적은 보면 55ha이고, 품종은 궁천조생이 약 80%, 흥진조생이 약 10% 정도이고, 극조생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2) 출하계획 및 수집

감귤생산관리에서 수확까지는 주로 개별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출하계획을 보면 7~8월에 1차 조사를 하고, 9월중에 2차 조사(예상 생산량 조사) 후 전체 물량을 확정하고, 9월말에 작목반 월별 출하계획, 작목반 일일 출하계획, 개인별 월별 출하계획, 개인별 일일 출하계획을 수립하여서 출하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25일에서 1월 5일 사이에 생산량을 파악한 후 수정 출하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표Ⅳ-1] 남원 신성작목반 감귤출하 계획서('00년산)

월별(출하일수)	11(10일)	12(23일)	1(21일)	2(20일)	계
출하량(상자)	5,000	19,780	27,720	17,200	70,000
산출근거	500×10일	860×23일	1,320×21일	860×20일	
1일 공판장별	가락 330	가락 660	가락 990	가락 660	
출하량(상자)	경주 170	경주 330	경주 200	경주 200	

자료: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표Ⅳ-2] 남원 신성작목반 개인별 출하계획서 (예시)

1조(단위: 콘테이너)

일	2	7	13	19	25	비고
성명						
1	80	160	80	160	160	
2	160	80	160	80	80	
3	80	80	80	160	80	
4	80	80	80	80	80	
5		80		80	80	
6	80		80			
7		80			80	
8			80		80	
9	80			80		

2조(단위: 콘테이너)

일	3	9	14	20	26	비고
성명						
1	80	160	80	160	160	
2	160	80	160	80	80	
3	80	80	80	160	80	
4	80	80	80	80	80	
5		80		80	80	
6			80		80	
7		80		80		
8	80		80			
9						

자료: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생산한 감귤은 개인별·월별 출하계획에 의하여 반장이 조절하여 일주일 전에 통보하면 반원들은 출하 날자에 개인 또는 작목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으며, 생산한 감귤은 작목반에 100% 무조건 위탁해야 하고, 상인판매시는 제명처리 된다. 개인출하자는 감귤을 선과장까지 수송한 후 수량 확인증과 자기 감귤 등급에 대한 사항, 선과 후 출하전표만 수령 받고 그 이후 선과 및 출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할 수 없다.

[도Ⅳ-1] 신성작목반 출하전표 양식

출 하 전 표

검사원 :

출하일자						출하자				
등 급 별	1	2	3	4	5	6	7	8	9	계
특 품										
상 품										
중 품										
보 통 품										
계										

자료: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3) 선별·등급 및 출하

감귤등급결정은 반장과 검사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먼저 샘플3개를 가지고 당도검사를 하고, 선택 및 과수크기를 검사 한 후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은 한라, 백록, 삼다, 큰영 순으로 나누어진다.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한라등급은 특상품이고, 그 다음으로 백록등급(특품)인데 품질은 특상품이지만 당도가 한라등급 보다 낮은 것으로, 크기는 대, 중,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11월 이후 선택이 90% 이상이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것 중에서 선별(제외)기준에 들지 않는 것이다.

삼다등급(상품)은 크기는 대, 중,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11월 이후 선택이 85% 이상이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것 중에서 선별(제외)기준인 자상, 병과, 감귤 껍질이 마르거나 꼭지가 심하게 마른 것 등이 미미한 것이다.

큰영등급(보통품)은 한라에서 1차선별 후 품질이 낮은 것으로 크기는 전부 해당되며 색택이 11월 이후 80% 이상이며 당도는 적용치 않는다. 선별기준 자상, 병과, 감귤 껍질이 마르거나 꼭지가 심하게 마른 것 중 극히 심하지 않는 것은 포함된다. 비상품(가공용)은 백록에서 선별 후 품질이 낮은 것이다.

[표Ⅳ-3] 신성작목반 감귤 크기에 관한 규정

구분	감귤 크기별 무게 및 개수 구분
특대	1개의 무게가 150~125g이며 15kg 상자의 개수가 100~120인 것
대	1개의 무게가 125~100g이며 15kg 상자의 개수가 120~150인 것
중	1개의 무게가 100~ 75g이며 15kg 상자의 개수가 150~200인 것
소	1개의 무게가 75~ 60g이며 15kg 상자의 개수가 200~250인 것
특소	1개의 무게가 60~ 50g이며 15kg 상자의 개수가 250~300인 것

자료: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감귤선별은 선별사가 하고 있는데 개인출하자는 선별에 관여할 수 없다. 선별기준시 제외대상은 부패과, 일소 피해과, 자상(긁힌 것 또는 벌레에 의한 것), 병과(창가병, 흑점병, 궤양병, 탄저병 등), 감귤 껍질이 마르거나 꼭지가 심하게 마른 것, 감귤 선별규정상 색택이 미흡한 것이다.

선별 및 등급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6인)에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청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판정하는데 소청심사 신청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판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에 불복하면 정관규정 및 총회의결에 따라 제명 처분된다.

감귤출하를 보면 포장상자에 개인명의를 없고 “신성감귤”이라는 공동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15kg상자로만 출하하고 있다.

‘00년산 감귤출하처 비율을 보면 가락동이 54%, 대구태평로가 17.5%, 경주원협이 27%, 양재동 농협물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장과 검사원이 시세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수송은 감귤 256상자(15kg)를 4개 팰릿에 나눠 적재(한 팰릿당 64상자)해서 출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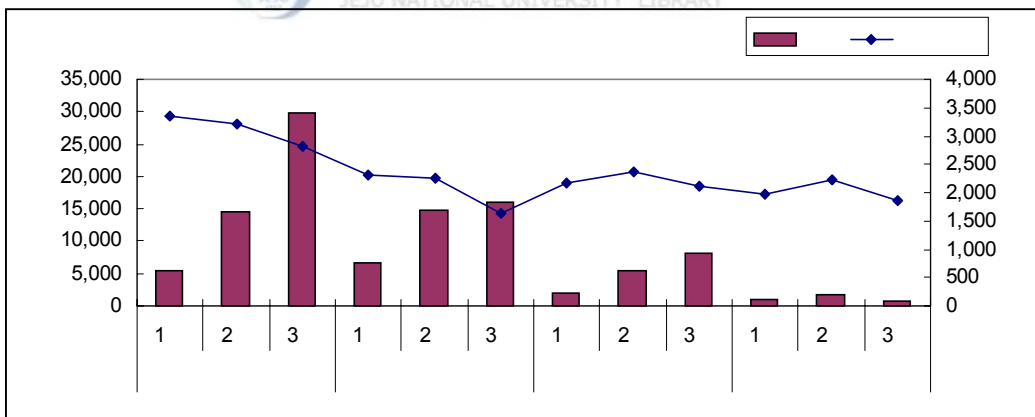
4) 정산

대금정산은 남원농협의 감귤공동정산 프로그램에 의해 3회에 걸쳐 정산(극조생 출하가 끝나는 11월말, 12월말, 출하완료 후)하고 있다. 먼저 선도금 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괄정산시 등급별, 크기별로 평균단가를 계산하여 개인별 출하량에 따라 정산하고 있다.

신성작목반 등급별 최종 정산물량(10~3월말)을 보면 한라등급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백록등급이 37%, 삼다등급이 10%, 큰영등급이 3%를 차지하고 있다. 1차와 2차 정산시에는 백록등급 출하가 많았으나, 3차 정산시에는 한라등급 출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산가격을 보면 한라등급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삼다등급, 백록등급, 큰영등급 순이다. 백록등급이 삼다등급보다 높은 등급이지만 삼다등급이 백록등급보다 가격이 높은 것은 백록등급이 9번과가 많아서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도IV-2] 신성작목반 정산시기별 및 상품별 수량 및 관당 평균가격('00년산)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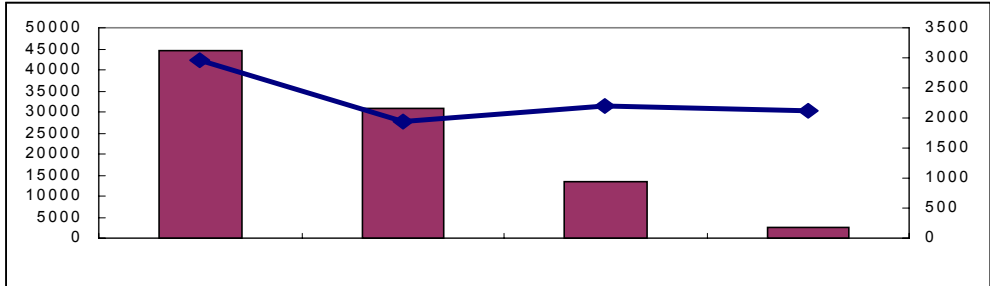


자료: 남원농협

17) 1차 정산은 11월 20일(극조생 출하가 끝난 후), 2차 정산은 12월 말, 3차 정산은 3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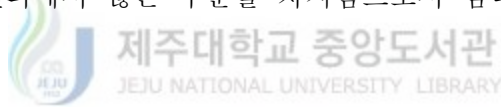
[도IV-3] 신성작목반 감귤 등급별 정산물량 및 평균가격('00년산)

단위: 상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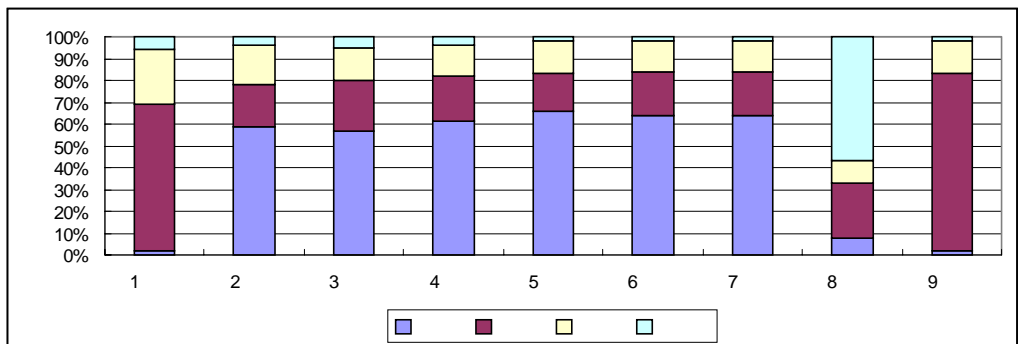


자료 :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감귤 크기별 등급비율을 보면 한라등급이 2, 3, 4, 5, 6, 7번과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록등급과 삼다등급이 각 20%씩 차지하고 있다. 1, 9번과는 백록등급이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다등급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백록등급은 1, 9번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삼다보다 평균가격이 하락하였다.



[도IV-4] 신성작목반 '00년산 감귤 크기별 등급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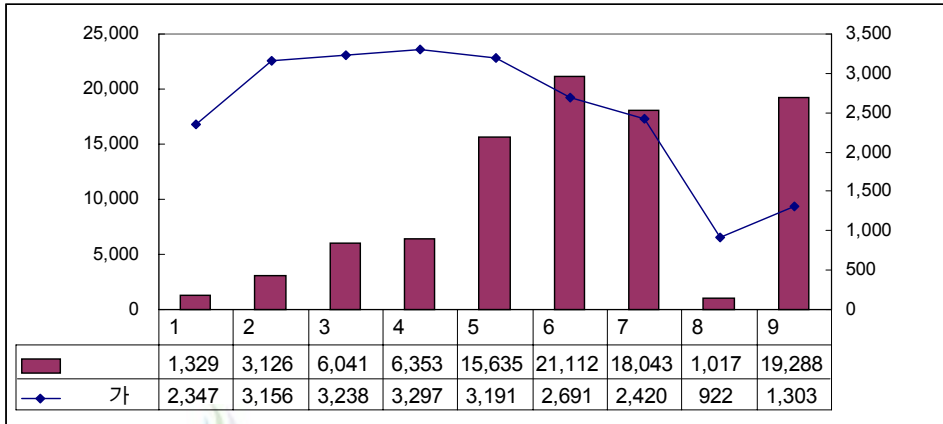


자료: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크기별 수량 및 가격을 보면 5, 6, 7, 9번과 등 대과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00년산 제주도 감귤이 전체적으로 대과비율이 많았기 때문이다. 크기

별 가격을 보면 2, 3, 4, 5번과가 수량은 적지만 관당평균 3,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았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9번과가 8번과 보다도 관당 평균 400원 정도 높은 가격을 받은 것이다

[도Ⅳ-5] 신성작목반 '00년산 감귤 크기별 수량 및 가격 (10월-3월)



자료 : 남원농협



5)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효과 및 문제점

(1) 효과

① 남원 신성 및 신광작목반은 공동정산제를 시작하기 전 남원농협 작목반 중 가격면에서 중상위에 속한 작목반이었다. 그러나 먼저 신성작목반으로 통합하여 공동정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남원농협 작목반 중 최상위 가격을 받았다.

남원농협 타 작목반과의 관당수취가를 비교해 보면 신성작목반은 관당 수취가가 2,514원으로 남원농협작목반 평균관당수취가 2,039원보다 475원(15kg상자 1,900원) 정도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최저가격을 받은 가21작목반(1,685원)보다 관당 수취가를 829원 더 받았다. 남원농협작목반 중 선별사를 둔 작목반과 비교를 하더라도 관당수취가를 500원~700원 정도 더 받았다.

[표Ⅳ-4] 남원농협 작목반별 관당수취가('00년산)

작목반명	출하실적(상자)	경락금액(천원)	관당수취가(원)	비고
신성	94,143	1,245,399	2,514	선별사
가1	32,020	348,835	2,001	
가2	24,438	271,657	2,063	
가3	92,254	1,048,083	2,027	선별사
가4	13,479	151,384	2,081	
가5	26,368	292,550	2,057	
가6	15,342	183,395	2,214	
가7	51,466	587,162	2,047	선별사
가8	7,055	76,794	1,980	
가9	30,392	367,287	2,275	
가10	70,906	772,873	1,927	선별사
가11	7,474	79,598	1,851	
가12	13,565	131,408	1,694	
가13	55,197	559,660	1,719	선별사
가14	7,456	75,302	1,725	
가15	7,750	75,746	1,700	
가16	71,409	747,493	1,796	선별사
가17	43,285	566,581	2,448	선별사
가18	18,476	218,364	2,197	
가19	96,629	1,065,721	1,932	선별사
가20	14,347	139,944	1,703	
가21	7,230	70,856	1,685	
가22	14,964	154,448	1,872	
가23	16,064	172,315	2,233	
가24	88,054	999,536	2,011	선별사
합계	918,763	10,402,571	2,039	

자료 : 남원농협, 2001

한편 공동정산제를 시행함으로써 홍수출하와 가격폭락에 따른 불안감 해소, 계획적인 출하 및 지속적인 물량공급으로 인한 시장교섭력 및 신용도 향상,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를 통해 반원들에게 고품질 감귤생산과 출하의욕 고취, 공정한 선별에 따른 품질향상과 가격향상 등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② 감귤을 펠릿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감귤 256상자(4개 펠릿×한 펠릿당 64상자)를 펠릿 출하해 날개상자로 출하할 때의 수작업 하역비 부

담액(한 상자당 190원씩 모두 4만8,640원)보다 4만3,000원 이상 감소한 5,200원만을 부담(한 펠릿 당 1,400원)함으로써 물류비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2) 문제점

① 남원 신성작목반은 작목반 관당 평균수취가가 2,514원으로 제주도 평균 농가 수취가보다 25% 더 많이 받았는데 관당 평균수취가가 3,108원부터 1,873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배 기술 및 품질 차이로 인하여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1,200원 차이로 나고 있어 반원들간의 반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배기술 및 품질 평균화를 위하여 선도농가의 재배기술 및 노하우를 공개하여 품질향상에 노력해야겠다.

[표Ⅳ-5] 신성작목반원별 '00년산 감귤수량 및 정산내역 (단위: 상자, 원)

성명	수량	관당금액	성명	수량	관당금액	성명	수량	관당금액
1	2,919	2,508	18	1,444	2,191	34	385	2,574
2	866	2,908	19	692	2,437	35	1,627	2,645
3	2,117	2,642	20	1,664	1,969	36	1,062	2,129
4	1,502	2,640	21	1,614	2,504	37	1,410	2,225
5	1,186	1,873	22	1,151	2,110	38	4,364	2,623
6	478	2,188	23	624	2,161	39	4,526	2,701
7	1,650	2,247	24	233	2,065	40	1,302	2,383
8	1,498	2,022	25	2,002	2,423	41	11,522	2,376
9	1,272	2,419	26	976	2,854	42	2,549	2,770
10	923	2,551	27	1,074	3,108	43	4,744	2,833
11	1,055	2,620	28	3,237	2,561	44	1,686	2,720
12	1,804	2,035	29	1,822	2,745	45	568	2,334
13	2,307	2,623	30	1,949	2,421	46	1,270	2,478
14	2,410	2,851	31	900	2,403	47	4,490	2,570
15	1,970	2,703	32	1,997	2,188	48	2,915	2,766
16	411	2,237	33	869	2,802	49	85	2,014
17	1,994	2,521						

자료: 남원농협, 2001

② 펠릿 출하를 하면 날개상자로 출하할 때보다 선박용 컨테이너 하나당 86상자가 적은 256상자밖에 싣지 못해 운송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별도의 상자버팀대(일명 쫄대)도 받쳐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고용노력비(선별사 및 인부)의 상승으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③ 희망농가에 의한 공동정산제 실시가 아니라新光작목반과 신성작목반을 통합하여 실시하였고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공동정산제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부족 및 짧은 기간으로 인한 사전 교육과 홍보 소홀로 인하여 반원과 임원간의 불만과 마찰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통합되기 전 작목반에서는 당번제로 작업을 하면서 서로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는 등 협동심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후 작업시 고용인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반원들간의 모임의 거의 없기 때문에新光-신성작목반원들간의 융합이 잘되지 못하고 협동심이 약화되고 있다.

④ 남원 신성작목반은 대부분 도매시장에 15kg상자로만 출하하고 있고, 물류센터 출하비율은 1.5%밖에 안되고 있다. 김홍배에 연구에 의하면 개별계산 작목반은 대부분의 물량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반면 공동계산 작목반은 물류센터, 백화점, 수출 등 유통업체 출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였다.¹⁸⁾ 감굴 공동정산제 기초작목반인 의귀작목반인 경우는 물류센터에 40%, 효돈작목반인 경우는 90%를 물류센터에 포장을 다양화하여서 출하하고 있다. 공동정산제 작목반 출하처 선호도에서 물류센터가 92.9%로 가장 높다는 조사가 나왔는데¹⁹⁾ 신성작목반도 공동정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향상과 계획출하에 의한 지속적인 물량공급이 가능하므로 포장을 다양화하여 물류센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 출하비중을 높임으로써 가격향상 및 이미지향상을 꾀할 수 있다.

18) 김홍배·임영선,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8, p48

19) 공동정산제 실시 작목반 조사에서 출하처 선호도에서 유사시장 76.9%, 도매시장 및 농협공판장이 76%, 백화점 85.7%, 물류센터 92.9%로 물류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작목반이 원하는 물량만큼 출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김홍배·임영선,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8, p70)

2. 남원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의향 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공동정산제를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남원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실태 및 의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반원들의 의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작목반원 48농가 중 18농가를 직접 방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

신성작목반원을 보면 품종 중 95%가 궁천이고, 평균재배 경력은 30년이였다. 조사반원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7명, 40~60세가 29명, 40세 미만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부부만 농사를 짓고 있으며, 과수원은 남원 및 위미리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 농가 경지면적을 보면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4,200평으로 제주도 감귤 호당 평균경지면적 2,100보다 많다. 1ha이하가 전체 조사농가 중 28%를 차지하고, 1~2ha가 50%, 2ha이상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정산제 참여동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농협직원의 권유가 67%이고, 반장 및 주위사람들이 권유가 33%를 차지하였다. 두 개의 작목반을 합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농협직원과 반장이 권유로 참여를 하였다.

[표IV-6] 남원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 참여동기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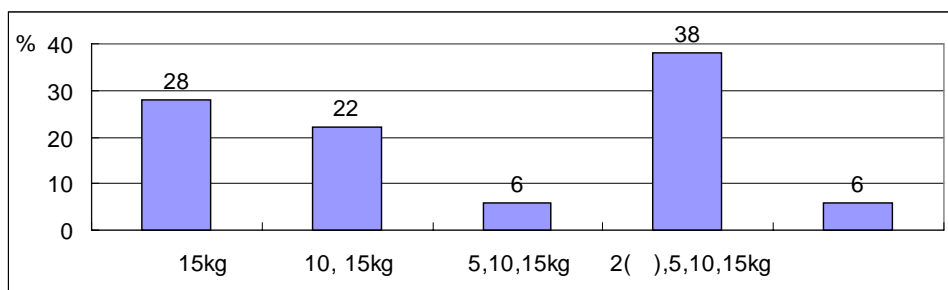
구 분	응답수 (%)
농협 직원의 권유	12(66.7)
주위 사람들의 권유	6(33.3)
합 계	18(100.0)

감귤 선별시 불만사항에 대한 결과는 불만이 있다가 9명(50%), 없다가 9명(50%)으로 조사되었다. 전에는 개별출하자가 직접 선별을 하다가 선별사에 의해 선별을 함으로써, 출하자가 선별에 관여를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감귤에 대한 애착 및 공동정산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에 대하여 불만을 보이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층에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별 및 등급결정에 불만이 있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다.

현재 포장상자 15kg출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현행 15kg 출하 28%, 2kg(망), 5, 10, 15kg출하 38%, 5, 10, 15kg출하 6%, 10, 15kg출하 22%, 기타가 6%이다. 28%만 15kg포장상자 출하에 찬성을 하였고, 나머지 72%는 포장상자를 다양화해서 출하해야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젊은 사람일수록 소포장 및 포장의 다양화에 대한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장의 다양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15kg이 무겁고, 포장상자를 다양화함으로써 가격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이유는 소포장을 함으로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도IV-6] 신성작목반 현재 포장상자 15kg출하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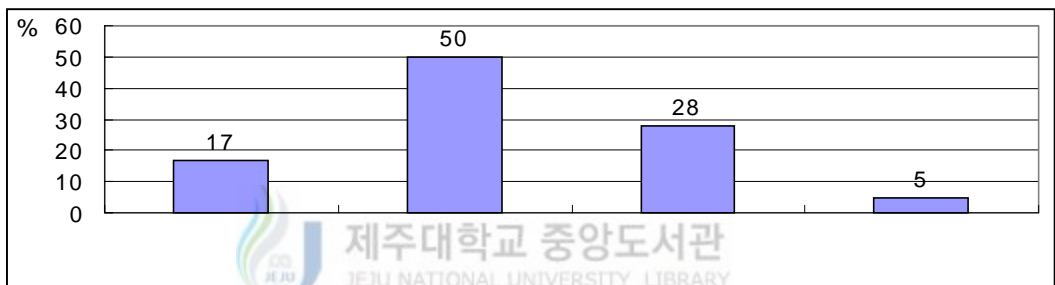


감귤 출하처²⁰⁾에 대한 응답 결과는 현행 그대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17%, 백화

20) 현재 신성작목반 출하처는 가락동 도매시장(54%), 대구 태평로(17.5%), 경주 원협(27%), 양재동(1.5%)으로 도매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고 물류센터 비중은 1.5%로 아주 낮음.

점 및 대형유통업체에 출하가 50%, 다른 도매시장으로의 출하 확대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반원 중 83%가 출하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조사반원 중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감귤 소포장화하여서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에 출하하는 것에 찬성하는 편이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현재도 가격을 잘 받으므로 그대로 출하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홍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동정산제 시범 작목반들의 출하처를 보면 공동정산제를 실시하는 작목반은 실시하지 않는 작목반에 비해 물류센터 및 백화점 비중이 아주 높다.²¹⁾

[도IV-7] 신성작목반 감귤 출하처에 대한 응답 결과



공동상표(신성감귤)에 의한 출하시 가격향상에 대한 관한 결과는 공동상표 출하가 가격이 좋다는 비율이 55.6%, 개인명의 출하가 좋다는 비율이 22.2%, 비슷하다가 22.2%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상표에 의한 출하시 가격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비율이 개인명의 출하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체 선별 및 등급규정을 만들고, 선별사에 의해서 엄격한 품질(당도)검사 및 등급구분을 함으로써 신성감귤에 대한 품질향상 및 이미지를 향상시켰기고, 그것이 바로 가격향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1) 공동정산제 시범작목반 조사에서 작목반 출하처별 출하비중을 보면 공동정산제 작목반은 유통업체(물류센터 및 백화점)·수출이 28.2%, 도매시장 57.1%, 산지공판장·기타 14.6%인 반면 개별정산 작목반은 유통업체·수출 3.5%, 도매시장 82.3%, 산지공판장·기타 14.2%이다. 공동정산제 작목반은 개별정산 작목반에 비해 도매시장 비중이 낮고 유통업체 및 수출 비중이 25%정도 높음. (김홍배·임영선,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8, p49)

그 전에 전속거래처 및 도매시장에 개인 브랜드화되어 있던 젊은 사람들이 개인명의 출하가 좋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올해 처음 공동정산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공동상표 출하가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표IV-7] 신성작목반 공동상표 출하시 가격향상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응답수 (%)
개인상표 출하가 가격이 좋다	4(22.2)
공동상표 출하가 가격이 좋다	10(55.6)
비슷하다	4(22.2)
합 계	18(100.0)

대금정산(3번정산)에 만족도 여부에 대한 결과는 불만족 비율이 77.8%, 만족이 22.2%로 나타나고 있다[표IV-8]. 불만족에 대한 이유는 정산시 기간이 너무 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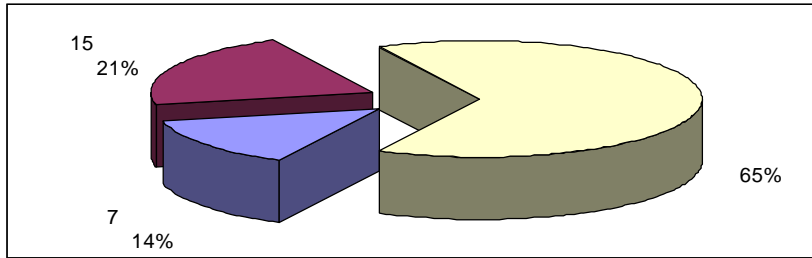
그러면 적당한 정산기간에 대한 의견에는 한달 정산이 65%, 15일 정산이 15%, 7일 정산이 14%를 차지하였다[도IV-8].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01년산 감귤부터는 정산기간을 한달 정산하기로 잠정 확정하였다.²²⁾

[표IV-8] 신성작목반 대금정산(3번)에 대한 만족도 의향 결과

구 분	만족	불만족
응답수(%)	4(22.2)	14(77.8)

22) 효돈농협 B작목반에서도 10일 정산에서 2001년산부터는 한달 정산으로 조정을 하였음.

[도IV-8] 불만족시 대금정산 기간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감귤 작목반 중 공동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작목반으로서의 자부심에 관한 응답 결과는 자부심이 강하여 다른 곳에서도 자랑 및 홍보를 한다는 의견이 77.7%, 보통이다가 16.7%, 자부심이 없다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신성작목반원들은 공동정산제 작목반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동정산제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표IV-9] 감귤 공동정산제 작목반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응답 결과

구분	합계	자부심이 강하여 다른 곳에서도 자랑을 한다	보통이다	자부심이 없다
응답수(%)	18(100.0)	14(77.7)	3(16.7)	1(5.6)

앞으로 공동정산제가 더욱더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반원들간의 협동의식 66.7%, 조합의 협조와 노력이 27.7%, 작목반장의 노력이 5.6%를 차지하였다[표IV-10]. 공동정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반원의 협동의식 향상에 대한 조사에서 향상된다는 비율이 27.8%로 조사되었는데, 앞으로 남원 신성작목반 공동정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원들의 협동의식 향상을 위한 임원 및 농협직원들의 지도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표IV-10] 앞으로 공동정산제가 성공 요인에 대한 신성작목반원의 응답 결과

구분	합계	반원 협동의식	작목반장(총무) 의 노력	판매담당 직원의 노력	조합의 협조와 노력
응답수(%)	18(100.0)	12(66.7)	1(5.6)	0(0.0)	5(27.7)

처음으로 공동정산제 실시 후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는 가격 및 판로확보, 품질 향상에는 긍정적이었으나, 노동력 및 협동의식에는 보통이었고, 유통비용 절감에는 부정적이었다.

가격과 판로 측면의 효과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앞으로 소포장으로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로 출하처를 다양화해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 측면에서는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한 전 반원들의 노력으로 재배기술의 평준화가 가능하고, 출하시 엄격한 선별과 등급화, 규격화 및 품질검사로 상품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는 그 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유통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상자비, 자가노력비 등이 감소하였지만, 선별 전담인력을 돕고 나서 고용노력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강하였다.

반원들간의 결속강화 측면에서는 공동작업을 통해 교류가 활성화되고 선도농가의 희생정신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및 농산물은 공동정산제 실시 후 반원들간의 결속강화가 81%로 높게 나타난 반면²³⁾ 남원 신성작목반은 반원들의 결속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도에서는 공동정산제 희망농가에 한해서 실시한 반면 남원 신성작목반은 두 개의 작목반을 합쳐서 만들었고, 그 전 작목반에서는 당번제 3명씩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화가 되었지만 현재는 고용인부에 의한 작업과 처음이라서 그 전 작목반원들끼리 융합이 잘되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심강화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23) 공동정산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배,임영선. 농협중앙회 조사부,1998

[표Ⅳ-11] 공동정산제 실시 후 효과에 대한 신성작목반원의 응답 결과

구	분	응답수 (%)		
		상	중	하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었다		13(72.2)	3(16.7)	2(11.1)
판로확보가 쉬어졌다		9(50.0)	8(44.4)	1(5.6)
농가의 재배기술 및 품질이 향상 될 것이다		10(55.6)	8(44.4)	0(0.0)
노동력이 절감되었다		5(27.7)	10(55.6)	3(16.7)
유통비용이 절감되었다		2(11.1)	6(33.3)	10(55.6)
반원들간의 결속력이 생겼다		5(27.8)	8(44.4)	5(27.8)
합	계	44(40.7)	43(39.8)	21(19.5)

공동정산제 실시 후 문제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재배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라는 비율이 61.1%, 등급구성비율에 따른 소득차가 5.6%²⁴⁾, 도매시장의 오랜 관행²⁵⁾이 5.6%, 기타가 27.7%를 차지하고 있다. 신성작목반 '00년산 감귤 관당 평균가격을 보면 재배기술 차이로 인하여 일인당 최고 관당가격이 3,108원부터 최저 1,873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선진농가의 노하우 공개 및 공동방제-공동수확 등 재배기술의 평준화를 이룩하고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4) 충북의 한 농협작목반은 처음에는 참여농가 전원이 사업에 헌신적이었지만 등급구분이 명확치 않고, 등급구성비율이 달라 정산과정에서 소득격차가 나타나면서 불만이 늘고 한두 농가씩 이탈해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http://www.nongmin.co.kr/continue/gongdong0630.htm>)

25) 도매시장의 오랜 거래관행도 공동정산제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남의 한 오이작목반인 경우 공동정산제를 도입,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서울가락시장에 표준규격으로 평상자 출하했지만 오히려 개별농가가 약간 더 답아 출하하는 관행보다 경락값이 덜 나오는 불이익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에는 공동정산제를 실시하고 도매시장에는 개별출하하고 있음. 그리고 대규모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중도매인 수가 적으므로 해서 오히려 소량으로 출하할때 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http://www.nongmin.co.kr/continue/gongdong0630.htm>)

[표Ⅳ-12] 공동정산제 실시 후 문제점

구 분	응답수 (%)
재배기술 수준의 차이	11(61.1)
등급구성비율에 따른 소득차	1(5.6)
정산과정에서의 소득차	0(0.0)
소득과 비용이 불일치	0(0.0)
도매시장의 오랜 관행	1(5.6)
기 타	5(27.7)
합 계	18(100.0)

공동정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는 산지유통시설 확충이 50.0%, 지속적인 감귤교육이 28.1%, 도매시장의 우대조치가 18.8%, 출하선도금 지원폭 강화가 3.1%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선과장 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를 통하여 노동력과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공동 방제 및 저장기술, 환경친화적 재배기술 등 지속적인 감귤관리 교육을 통하여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Ⅳ-13] 공동정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성작목반원의 응답 결과

구 분	응답수 (%)
출하선도금 지원폭 강화	1(3.1)
산지유통시설(작목반 시설) 확충	16(50.0)
도매시장에서의 우대조치	6(18.8)
정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0(0.0)
지속적인 감귤관리 교육	9(28.1)
합 계	18(100.0)

V. 감귤산지유통조직 공동정산제 활성화 방안

1. 감귤 공동정산제 도입시 고려사항

1) 감귤 공동정산제 기간의 설정

감귤 공동정산제 기간은 출하시기 조절 및 대금정산 문제를 고려하여서 설정을 하여야 한다. 남원농협 신성작목반인 경우 1년에 3번 정산(2개월 pool제)을 하고 있는데 정산기간이 너무 길어서 표IV-8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반원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고 있다. 정산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귤 출하조절은 용이하나 대금정산이 너무 지연되고, 가격이 높은 시기에 출하하고 평균가격을 받는 농가는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다.²⁶⁾ 한편 하효작목반인 경우는 10일 공동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 정산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대금정산은 신속하나 감귤 출하시기 조절이 용이하지 못하다.²⁷⁾ 따라서 감귤 공동정산제 기간 설정은 출하조절 효과와 배분 및 공평성 문제, 대금정산, 작목반원 성향을 동시에 고려하여서 설정을 해야 하겠다.

2) 감귤 품질등급기준의 설정 및 선별의 투명성 유지

현재 감귤작목반 대부분은 크기에 의한 선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진 작목반에서 당도측정 및 외형·색택검사를 한 후에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수가 적고 각 작목반마다 다양한 형태의 등급표기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정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품질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시켜야 한다. 품질등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품질감귤 생산농

26) 신성작목반 2000년산(시행 첫해) 정산 기간이 길게함으로서 작목반원들사이에 반목이 생겨서 2001년산부터는 1개월 pool제를 시행하고 있음.

27) 하효작목반인 경우 2000년산까지는 10일 공동정산제를 시행하였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서 2001년산부터는 1개월 pool제를 시행하기로 함

가들이 기피하거나 품질향상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등급기준이 과다하게 세분화 됐을 경우 비용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비된 등급기준을 농가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시장에도 제주감귤의 등급구분과 품위기준의 표기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²⁸⁾

또한 공동정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평가이고, 이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선별등급이다. 그러므로 생산농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등급비율 결정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²⁹⁾ 현재 남원 신성작목반인 경우 선별 및 등급결정에 불만이 있을 시 소청심사위원회(6명)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공동정산제 참여범위의 설정

감귤 공동정산제 참여범위 설정은 출하량 및 상품성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의귀작목반인 경우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반원(11명)으로 시작하였지만 물량이 부족하여 비반원의 상품을 순회 수집하거나, 출하알선을 함으로써 상품성제고와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편 남원 신성작목반인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반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신광·신성작목반 통합에 의한 참여형태로 공동정산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재배기술 및 감귤면적의 격차로 인하여 농가수취가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한 반원들간의 반목이 생기고, 협동 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출하량 및 상품성 향상으로 인하여 신뢰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출하량 및 상품성 그리고 참여율을 동시에 고려한 참여범위 설정이 중요하다.

4) 공동정산제에 대한 이해 및 효과 인식 여부

공동정산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공동정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감귤 작목반장 및

28) 유영봉, 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108

29) 유영봉, 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118

생산농가들은 공동정산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일반농가와 작목반장 공동정산제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를 보면³⁰⁾ 공동정산제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31.6%인 반면 모른다는 비율이 45.3%으로 더 높다. 일반농가는 공동정산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비율이 54.2%, 알고 있다가 1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반장은 모른다는 비율이 30.6%, 알고 있다가 6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반농가가 작목반장에 비해 공동정산제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V-1] 공동정산제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 응답 결과

구 분	일반농가		작목반장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전 혀 모 림	13	22.0	11	30.6	24	25.3
잘 모 림	19	32.2	0	0.0	19	20.0
보 통	19	32.2	3	8.3	22	23.1
약간 알고 있음	3	5.1	6	16.7	9	9.5
자세히 알고 있음	5	8.5	16	44.4	21	22.1
합 계	59	100.0	36	100.0	95	100.0

공동정산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공동정산제 도입 의사에는 찬성이 47.4%, 반대가 26.3%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반농가는 찬성이 57.7%, 반대가 8.5%인 반면 작목반장은 찬성이 30.5%, 반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농가는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작목반장은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공동정산제 도입이 시기상조, 개별출하를 해도 가격이 잘 받음으로서 필요 없다, 반원들의 반대 등이다.

30) II장의 3-1 조사농가 개요와 같음.

[표 V-2] 감귤 공동정산제 도입에 대한 의견여부

구분	일반농가		작목반장		합계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적극찬성	6	10.2	4	11.1	10	10.5
찬성	28	47.5	7	19.4	35	36.9
모름	20	33.9	5	13.9	25	26.3
반대	4	6.8	19	52.8	23	24.2
적극반대	1	1.7	1	2.8	2	2.1
합계	59	100.0	36	100.0	95	100.0

공동정산제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반대를 하거나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생산농가의 공동정산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정산제 장점과 효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목반원들도 공동정산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참여농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 감귤 공동정산제 활성화 방안

첫째, 공동정산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행 작목반으로는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량공급 및 다양한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고, 시장과의 신용도도 늘려야 한다. 의귀작목반인 경우 물량이 부족하여 신용도 때문에 비반원 및 동네사람들 감귤을 수집하여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벽한 공동정산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하효작목반 경우도 거래처에서 물량을 요구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현행 소규모 작목반으로는 물량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출하와 산지교

섭력을 강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조직의 공동정산제도 중요하지만 공동출하 조직의 연합 및 대형선과장화 하여서 계획적인 출하와 산지교섭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각 현의 ‘과수농업진흥계획’에 의한 선과장 통제합은 선과장 시설현대화 등의 구조조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대량생산시기에 각 현에 대형선과장을 국고지원에 의해 설치한 이래 최근의 농업구조조정 및 개방화 대응사업으로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한 대형선과장체계(1960년대 초부터 전 기간 pool 제로 공동정산제 운영)로 변화시키고 있다.³¹⁾

제주도 감귵의 경우도 조직연합 및 대형선과장체제로 변화시키고 대량의 물량 및 가격이 안정되는 다양한 출하처를 개척하고 생산자는 생산에만 신경을 쓰고 그 이후 출하 및 판매부터는 생산자단체의 판매전문가가 담당함으로써 시장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

감귵 작목반 소형선과장체제에서 대형선과장체제(공동출하-공동정산)로의 전환 및 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① 1단계 : · 공동출하-공동정산제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인 대형선과장 체제 효과 홍보 및 교육강화를 통한 인식 확산

· 농·감협 직영선과장 중 대형화 추진 및 공동정산제 시범화 추진

② 2단계 : 里(洞)당 작목반 통합으로 인한 대형선과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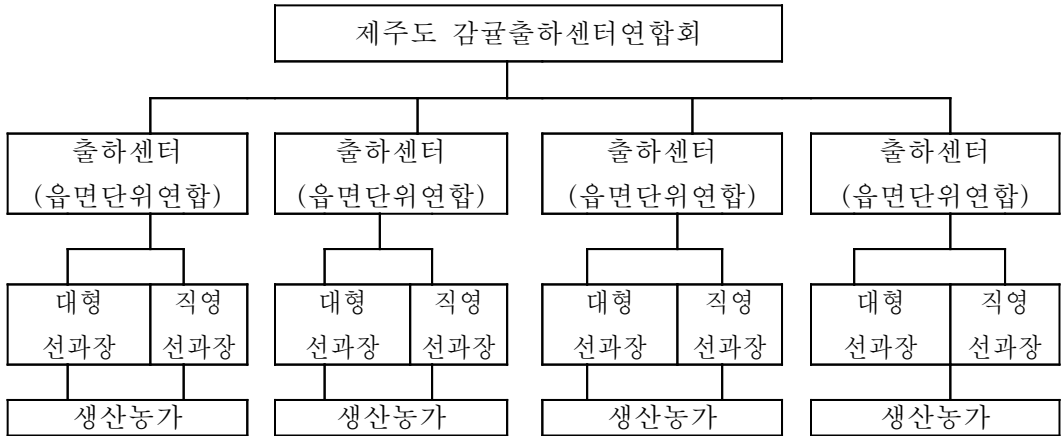
③ 3단계 : 읍·면 단위로 연합(네트워크화 : 생산자조직 감귵농업의 조직화) 하는 지역감귵출하센터를 구축하여 협력체계 마련

④ 4단계 : · 제주도 감귵출하센터 연합회 구축

· 대형선과장체제-공동정산제 완성하여 생산조정 및 출하계획, 시장 교섭력 확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출하독점지로서 지위 확보

31)유영봉·현공남, 감귵의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87

[도 V-1] 대형선과장체제에 의한 공동정산제 시행체계도(안)



주) 지역출하센터개수와 선과장의 규모 및 수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함³²⁾

공동정산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형선과장 및 광역조직화에 의한 대량 생산이 필요함으로 인하여 선과장 중·대형화 의사를 확인해 본 결과³³⁾ 찬성이 64%, 반대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농가 대형화 찬성비율이 70%로써 반장 비율 5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반대비율을 보면 반장이 반대하는 비율이 47%로써, 일반농가의 반대비율보다 약 2배정도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선과장 개편 및 공동정산제 추진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표 V-3]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중·대형선과장체제로 개편 의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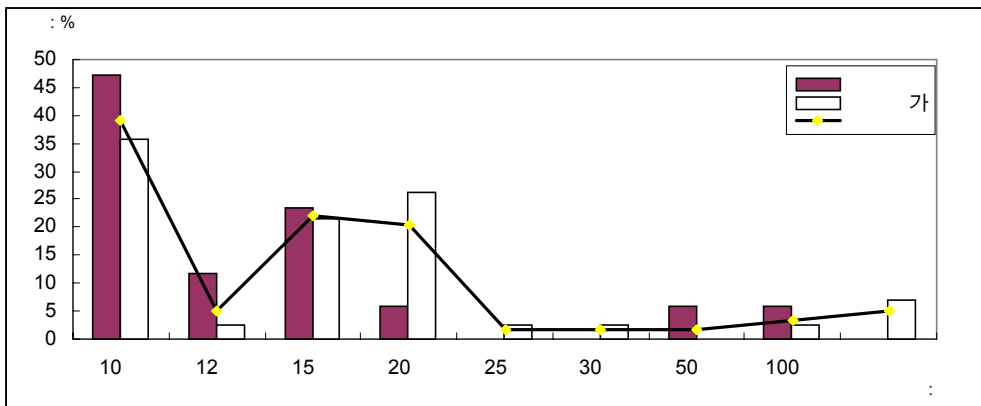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적극 찬성	찬성	모름	반대	적극 반대
일반농가(%)	59(100.0)	0(0.0)	41(69.5)	3(5.1)	15(25.4)	0(0.0)
반 장(%)	36(100.0)	11(30.6)	8(22.2)	0(0.0)	17(47.2)	0(0.0)
합 계(%)	96(100.0)	11(11.6)	49(51.6)	3(3.1)	32(33.7)	0(0.0)

32) 유영봉, 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112 참고 수정하였음.

33) II장의 3-1 조사농가 개요와 같음.

대형선과장으로 개편시 적정선과 규모에는 86.4%가 10만 상자(15kg)에서 20만 상자라고 대답을 하였고 50만 상자 이상은 5.1%를 나타내고 있다.

[도 V-2] 소형선과장에서 중대형화선과장으로 개편시 적정선과 규모 여부



주: 대형선과장에 찬성한 일반농가 41명, 작목반장 17명 조사

둘째, 공동정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가간 재배기술 수준이 평균화되어야 한다. 김홍배의 연구에 의하면 공동정산제 작목반조사 결과 공동정산제를 시도하지 않았거나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 중 농가간 기술격차가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 출하하는 작목반 중 초기에 공동정산제로 출하했다가 품질격차로 인하여 개별정산으로 출하하는 사례도 상당수가 있다.³⁴⁾ 남원 신성작목반인 경우도 정산 결과 일인당 관당 평균금액이 최고 3,108원부터 최저 1,873원까지 1,200원 차이가 나고 있다. 재배 및 관리기술수준 차이에 따른 품질격차로 인하여 반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다.

공동정산제는 개별보다는 공동활동을 통하여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서 선도 농가 및 일반 농가의 고유 재배기술 및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품질 평준화 및 향상에 노력을 함으로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품질 평준화 및 향상, 가격 향상을 위하여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정산에서 더 나아가 공동방제 및

34) 김홍배·임영선,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8 p62

공동수확을 통한 모든 단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Pooling시스템이 중요하다.

셋째, 생산자들을 조직하고 선도할 수 있는 리더 육성이 필요하다. 김홍배의 조사에 의하면 공동정산제 작목반 중 86%가 조합직원 및 리더의 설득으로 도입을 하였다.³⁵⁾ 남원 신성작목반의 경우도 농협직원 및 신성·신광작목반장의 설득으로 공동정산제를 실시하였는데, 시행초기에 기존의 출하체계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고 시행에 많은 장애(4명 탈퇴)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공동정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장 및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성작목반원의 73%가 공동정산제 성공요인을 반장 및 리더의 헌신적인 노력(작목반원의 협동의식도 반장 및 리더의 역할이 중요)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공동정산제 시행초기에 반장 및 리더의 역할은 중요함으로 체계적인 리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과 홍보가 필요하다. 유통환경 변화, 상품성 향상 및 시장개척 방법, 작목반의 의사결정 방법, 구성원의 불만 최소화 방법, 감귤 병해충 등 감귤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정산제 조직에 대한 **우대 지원 및 지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동정산제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초기에 선별·등급화에 필요한 비용, 각종 자금(출하선도금, 포장재비) 및 사무기기 등 각종 지원을 우선함으로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정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의 자금지원은 물론 유통시설 지원³⁶⁾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신성작목반 조사 결과 물류센터 및 백화점 등 거래처에 출하³⁷⁾를 원하고 있지만 물류센터에 1.4%정도 밖에 출하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시장보다 가격이 안정된 물류센터 개척이 필요하고, 물류센터에서도 공동정산제를 시행하는 작목반

35) 김홍배·임영선, 공동정산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조사부, 1998, p68 - 69개 조사작목반 중 조합 직원 권유 50.7%, 작목반장 설득 34.8%

36) 남원 신성작목반원 조사 중 활성화방안에서 유통시설(선과장 및 기계 현대화) 지원이 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7) 김홍배의 조사에 의하면 작목반 중 출하처별 선호도 조사에서 물류센터에 대한 선호도는 93%로 선호도는 가장 높으나 물류센터 출하 비율은 품질 및 선별이 까다로워서 원하는 물량만큼 출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원신성작목반 출하처 선호도 조사에서도 대형유통업체가 50%, 다른 도매시장 개척 28%, 현행 그대로 17%를 나타내고 있다.

의 출하물량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작목반 공동정산제 추진을 유인할 수 있다³⁸⁾.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공동정산제 출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상장하고 상장수수료 감면 등 우대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공동정산제 시행초기에 효과를 거두고 비참여 농가에 확산을 기대한다면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 선과장의 시설규모 및 운영에 관한 지도와 선별에 대한 기술지도, 정산방법에 대한 지도, 판매계획에 대한 지도 등 다양한 기술적 지도와 지원을 통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실현되면 다른 선과장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³⁹⁾

여섯째, 생산자들에게 공동정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 확대를 해야한다. 김홍배의 조사에 의하면 공동정산제 시범작목반 중 40%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공동정산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⁴⁰⁾ 그리고 감귤 생산농가 조사에서도 대부분이 공동정산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시범작목반원들도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데 일부농가는 고유의 재배기술이나 노하우 공개를 기피하고 등 개인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므로 공동정산제를 도입하기 전에 생산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정산제의 효과 및 장점을 홍보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생산농가 대부분이 현재의 감귤유통구조로는 개방화된 유통체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감귤유통의 개선책 중 하나로 대형선과장 및 공동정산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정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정산제 작목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또한 개별출하에서 공동출하-공동정산제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그래야 생산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공동정산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38) 김홍배·임영선, 공동정산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조사부, 1998, p70~71

39)유영봉·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 p127

40) 김홍배·임영선,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8, p6

V.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감귤 농감협 작목반 대부분이 개별생산자가 출하시기 및 출하처, 출하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개별선별-개별출하-개별정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개별생산자간 완전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 및 폭등, 계획적인 출하 및 선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별에 의한 고품질 감귤 출하 및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제주도 감귤을 독점적 산지로서의 가격결정력을 생산자 쪽으로 유인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소비자유통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 뿐만아니라 출하개선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출하 실태 분석 및 산지유통조직을 유형화하여 공동정산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산지유통조직 실태 및 선과장 실태 분석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감귤출하 및 산지유통의 실태 분석과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귤출하 체계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목반장 및 생산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와 실증방법에 의한 감귤산지유통조직의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출하체계는 개별단위의 출하형태이다. 기본적으로 개별생산자가 출하량, 출하시기, 출하처를 결정하고 있다. 출하자 표기시 개인명으로 출하하고 있고, 정산도 개별정산하고 있다. 이러한 출하형태로는 개별생산자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홍수출하의 우려가 있고 계획적인 출하 및 출하조정이 어렵다.

둘째, 감귤과 관련된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시설의 핵심인 선과장을 보면 면적이 150평 미만의 소형선과장이 78%를 차지하고 있고, 선과기는 수동 및 반자동 76%, 3.5톤 미만의 소형선과기가 36.3%로 선과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선과장당 출하량을 보면 6만상자 이하의 선과장이 77.9%를 차지함으로써 처리규모가 영세한데, 이들 영세한 선과장들간에도 연계성이 결여되어 시장 출하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출하조정이나 소비지 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감귤 선별 및 등급결정에 있어서 출하농가가 선별에 직·간접 관여하고 있고 선별사를 두더라고 개인이 선별에 관여함으로 인해 공정한 선별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등급결정에 있어서 대부분 크기위주로 결정하고 있으며, 당도 및 외향검사 등 품질위주로 결정하는 선과장은 소수이기 때문에 현행 선과장에서의 등급결정은 크기위주의 가격차별화만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감귤생산자들도 현재의 감귤유통체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하조절체계 취약, 소규모 작목반을 이용한 개별출하 체제, 비상품 감귤처리 문제, 상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부재 등 감귤유통전반에 걸쳐 부정적 의견이 강하였다. 이것은 감귤 출하 및 유통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귤출하 실태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목반 출하 및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기초조사에 의한 분석 결과 감귤수집에서 대금정산까지 출하단계별 형태를 구분화하여 5종류로 나누어 보면 유형1은 상인출하에 의한 선별-출하-정산형태로써 감귤생산자로부터 감귤을 수집하고 선과장에서 선별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전속거래처 및 다양한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으며, 상인 자신이 출하량, 시기, 양을 결정하고 있다.

유형 2는 작목반을 통한 개별선별-개별출하-개별정산형태로써 대부분 농감협 감귤작목반이 여기에 속한다. 생산자의 출하의사결정에 따라 출하량, 시기, 출하처 등이 결정되고 선별시 생산자가 직접선별을 하고 크기위주로만 등급이 결정되고

있다. 유형1, 유형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출하량, 시기, 출하량 조절 등 출하조절 및 계획적인 출하가 어렵다.

유형3은 작목반에 통한 공동선별-공동출하-개별정산형태로써 대부분 선진작목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가 적다. 출하량, 출하처, 출하시기 등은 반장 및 총무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선별사에 의한 당도 및 외향검사가 이루어지고 크기 및 품질에 의한 등급구분으로 이미지 향상과 가격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명의 출하에 의한 개별정산을 함으로써 자기 감귤에 대한 가격 및 애착 때문에 선별·출하처 결정시 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공동정산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유형4는 작목반을 통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정산의 형태로 제주도 감귤작목반 중 3개 작목반이 조사되었다. 그 중 남원농협 신성작목반은 예상생산량 조사 및 출하계획서 작성, 무조건 위탁, 공동상표 및 팻릿 출하, 이의 제기시 소청심사위원회 소집, 선도금 지급, 선별 및 출하처 결정시 개인 참여 금지, 1년에 3번 정산 등 가장 근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동정산제를 시행함으로써 가격향상 및 소득의 안정, 계획출하 및 지속적인 출하로 인한 시장교섭력 및 신용도 향상 등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되어서 재배기술 차이, 협동심 약화, 유통비용 상승 등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신성작목반원 설문조사 결과 공동상표 사용 및 가격향상, 선별에 의한 품질향상에는 만족하고 있고, 공동정산제 작목반으로서 자부심이 강하였다. 그러나 선별, 출하처 및 15kg 포장상자 출하, 대금정산기간, 협동의식 및 유통비용절감에는 부정적이었다.

유형5는 미국의 썬키스트와 같은 대규모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정산제로 제주도내 감귤작목반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감귤산지유통조직의 출하실태 분석과 출하유형에 관련된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동정산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정산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일 소규모 작목반으로 인한 물량부족으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출하와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일조직의 공동정산제도 중요하지만 공동출하 조직의 연합 및 대형 선과장화하에서의 공동정산제가 필요하다. 특히 생산자는 생산에만 신경 쓰고, 출하 및 판매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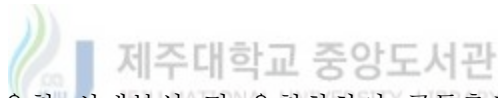
는 생산자단체의 판매전문가가 담당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공동정산제는 개별보다는 공동활동을 통하여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것으로서 선도 농가와 일반 농가의 고유한 재배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품질 및 가격 향상이 중요하다.

셋째, 공동정산제 시행초기에 효과를 거두고 비참여 농가에 확산을 기대한다면 체계적인 리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과 홍보가 필요하고, 조직에 대한 우대 지원 및 지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공동정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장점·효과 및 개별출하에서 공동출하-공동정산제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산지유형 실태분석 및 유형화하여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출하체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농가와 작목반장에 대하여 감귤 출하 실태 및 공동정산제 의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한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된 모든 모집단들을 대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산지유통조직의 출하실태 및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여러 면을 실제로 평가하는데 있어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감귤 공동정산제가 시행 초기라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서 기존연구와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감귤의 출하유형 분석을 정리하고 공동정산제 체계를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것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감귤유통개혁 기획단, 「감귤생산·유통개혁 자료」, 제주도, 1998
- 강경선, 「농업생산자 조직론 -제주 감귤작목반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제주도대학교 출판부, 2000
- 강경선, 「감귤생산자 유통조직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도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1998
- 강경선·강동일, 「감귤의 산지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제주도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1994.
- 고성보, 「제주도 지역농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사단법인 한국농정포럼, 1999
- 김영호, 「감귤작목반 구성규모별 운영실태 비교분석」 제주도 농업기술원, 1996
- 김홍배 외, 「공동계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1998
- 농협중앙회, 「공동계산제 벤치마킹 사례」, 농협중앙회, 1999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01 작목반 공동계산제 추진계획」, 2001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 유통처리 실태」, 각년도
- 박길석, 「감귤, 출하형태, 유통」 제주도 농업기술원, 1997
- 유영봉·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도대학교, 2001
- 이두순 외, 「농산물 공동출하와 지역농업의 구조개선」, 농촌경제, 1997
- 이원후, 「감귤생산 발전을 위한 작목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의 감귤작목반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제주도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 제주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000
-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 「감귤유통처리 실태 분석」, 1997-2001
-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 「감귤출하 단체(출하처) 및 거래처 현황」, 1999

2. 외국 문헌

Andrew A. Jermolowicz, 「Cooperative Pooling Operations」, USDA, 1999

David W. Cobia, 「Cooperatives in Agriculture」, Prentice Hall

James A. Jacobs, 「Fruit and Vegetable Cooperative」, USDA, 1990

James A. Jacobs, 「Cooperative in the U.S Citrus Industry」, USDA, 1994

3. 기타 자료

남원농협, 「C작목반 선별 및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 2000

제주도, 「감귤선과장 실태조사 대장」 2000

<http://www.nonghyup.com/> 기사검색

<http://www.maf.go.kr> 기사검색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kr/>) 기사검색, 1999.5.31, 1999.6.29, 1999.7.6,
1999.11.6, 1999.11.19.

제주일보(<http://www.chejunews.co.kr/>) 기사검색, 1999.5.15, 2000.5.26

제민일보(<http://www.cheminilbo.co.kr/>) 기사검색, 2001.10.26

한라일보(<http://www.hallailbo.co.kr/>) 기사검색, 2001.10.8, 2001.10.8

[부록1-1]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공동출하-공동정산제에 관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01학년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제출에 사용될 설문지로서, 남원농협 신성작목반 현황 및 공동선별-출하-정산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귀하의 고견은 본 연구조사 작업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실대로 그리고 생각하고 계신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귀하의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지도교수: 현 공 남 (☎ 064-754-3353)

연구자: 강 팽 철 (deeger7@hanmail.net)

※주 소 :

※핸드폰 번호 :

※전화번호 :

※성 명 :

※작목반에서의 지위 :

1. 농가 기본개요

1) 연령 : 경력 : 년 학력 :

2) 가족구성

가족관계	연령	동거 여부	경력	학력	농작업 참여형태 (연중/일부/불참)	참여농작업 (일부참여시)	비고

3) 과수원 기본현황

포장구분	소재지 (읍/면, 동/리)	면적(평)	품종별 수령(년생)

4) 공동정산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① 작목반장의 설득 ② 조합직원의 권유 ③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④ 주위 사람들의 권유 ⑤ 기타

5) 선별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① 있다 ② 없다

6) 선별시 불만을 있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보셨습니까?

① 해봤다(번) ② 안해봤다

7) 포장상자를 15kg으로 출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15kg상자 ② 10kg, 15kg상자 ③ 5kg, 10kg 15kg상자 ④ 망포장, 10kg, 15kg상자 ⑤ 기타()

8) 출하처에 대한 의견은?

① 현행 그대로가 좋다. ②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해야 한다.
③ 다른 도매시장으로 출하처를 늘려야 한다. ④ 기타

9) 개인명의 출하와 공동상표(신성감귤)출하에 대한 의견은?

① 개인명의 출하가 가격이 좋았다. ② 공동상표 출하가 가격이 좋았다. ③ 비슷하다.

10) 정산을 3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

-개선방법(예 : 10일 정산, 한달 정산, 1년에 몇 번) :

11) 선도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지급 받으셨다면 몇 번 받으셨고 액수는(전체 금액의 몇 %)?

12) 공동정산제를 감골 작목반으로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 자부심은?

① 자부심을 갖고 다른 곳에서도 자랑을 한다. ② 보통이다.

③ 자부심이 없다. ④ 그전 작목반과 마찬가지로.

13) 공동정산제 성공요인은?

① 반원의 협동의식 ② 작목반장 및 총무의 헌신적인 노력

③ 판매담당 직원 노력 ④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14) 공동정산제 실시 후 효과는?

① 농산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었다 (상, 중, 하)

② 판로확보가 쉬어 졌다 (상, 중, 하)

③ 농가의 재배기술 및 품질이 향상되었다 (상, 중, 하)

④ 노동력이 절감되었다 (상, 중, 하)

⑤ 출하비용이 절감되었다 (상, 중, 하)

⑥ 반원들간의 결속력이 생겼다 (상, 중, 하)

15) 공동정산 실시 후 가장 절감된 분야는?

① 선과비 ② 운임비 ③ 하역비 ④ 규격상자비 ⑤ 인건비 ⑥ 기타 ()

16) 공동정산제 실시 후 문제점은?

① 재배기술 수준 차이 ② 등급구성비율에 따른 소득차 ③ 정산과정에서의 소득차

④ 소득과 비용이 불일치 ⑤ 도매시장의 오랜 관행 ⑥ 기타 ()

17) 공동계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 선택)

① 출하선도금 지원폭 확대 ② 산지유통시설 확충 ③ 도매시장에서의 우대조치(상장수수료 차등적용, 우선 경매) ④ 정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⑤ 지속적인 교육

※ 하고 싶은 말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부록1-2]

감귤 출하 및 정산에 관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01학년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제출에 사용될 설문지로서, 제주감귤의 출하 형태 및 공동선별-출하-정산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귀하의 고견은 본 연구조사 작업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실대로 그리고 생각하고 계신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귀하의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지도교수: 현 공 남 (☎ 064-754-3353)

연구자: 강 팽 철 (deeger7@hanmail.net)

※ 소속 : ()농협, ()감협, ()납세조합, ()청과, 기타

※ 작목반명 :

※ 응답자성명 : (핸드폰:)

※ 재배면적 : ※ 품종 :

※ 나이 : ※ 경력 :

1. 감귤 출하시기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작목반원 협의 ② 자체 ③ 농·감협이 지정 ④ 작목반장이 결정

2. 감귤 출하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

- ① 감귤가격 조건 ② 품질(부패과) ③ 관행상(대목) ④ 저온시설부족 ⑤ 기타

3. 감귤 출하처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반장이 정함 ② 자체 ③ 농·감협이 지정 ④ 전속거래 ⑤ 기타()

4. 출하처 선택시 우선 순위는?

- ① 가격 조건 ② 단골거래 ③ 출하 편의성 ④ 대금정산 조건 ⑤ 기타

5. 감귤 출하량 결정방법은 ?

- ① 자체 판단 ② 의무출하량(%) ③ 반장이 연락 ④ 기타()

6. 감귤 출하시 주로 누구의 명의로 출하합니까?

- ① 작목반명 ② 출하농가(개인) ③ 고유상표 ④ 작목반장 ⑤ 기타()

7. 감귤출하비율(100%환산)은?

계통	%	상인	%	포전	%	직거래(백화점, 물류센터)	%
----	---	----	---	----	---	----------------	---

8. 만약 계통출하를 주로 하신다면 그 이유는 ?

- ① 분산판매 (가격위험 줄이려고) ② 상인판매보다 높은 가격 ③ 조합권유
④ 상품의 질이 나빠서 ⑤ 반원합의에 의해 상인판매가 안되기 때문
⑥ 가공용을 팔기 위해서 ⑦ 기타 ()

9. 만약 상인판매를 주로 하신다면 그이유는 ?

- ① 계통출하시 가격이 낮거나 불안전하다. ② 정산이 늦다 ③ 노동력 부족
④ 가격을 흥정할 수 있어서

10. 감귤가격정보를 얻는 방법은?

- ① TV, 신문 ② 인터넷 ③ 농감협 가격정보 ④ 동네사람들 ⑤ 상인

11. 작목반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부선택)

- ① 공동방제 및 시비 ② 수확 ③ 농약 및 비료의 공동구매 ④ 선별작업
⑤ 대금정산 ⑥ 공동출하 ⑦ 공동수송 ⑧ 판매처 선택 ⑨ 기타()

12. 감귤선별 및 등급결정에 대한 설문

- 1) 등급구분 여부 및 종류 : 2) 선과시 직접 참여여부 및 방법은 :
3) 선과시 문제점(불만)은 :

13. 감귤판매대금 정산방법은 ?

- 상인판매시 : ① 판매 후 즉시 ② 먼저 몇 %를 받고 나중에 나머지 받음
③ 일정기간이 지난 후 ④ 기타()

-계통출하시 : ① 경매 후 즉시 ②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산
③ 먼저 몇 %를 받고 나중에 나머지 받음 ④ 기타 ()

※ 공동정산제란 다수의 개별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고 공동으로 판매한 후 등급별 출하물량에 따라 비용과 대금을 평균하여 정산하는 방법임. 출하명의를 개별농가가 아닌 작목회나 조합명의로 발급되고, 소비지 정산대금도 작목반 또는 출하조합 명의로 입금됨.

14. 공동정산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름 ② 얘기는 들었음 ③ 조금 알고 있음 ④ 보통 ⑤ 자세히 알고 있음

15. 공동선별-공동출하-정산제를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 반대한다

16. 공동정산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품질향상 ② 소득증대 ③ 판로확대 ④ 협동의식증대 ⑤ 출하비용 감소

17.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현재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① 공동정산의 실익이 없어서 ② 농가간 기술차이 ③ 반원들 반대
④ 농가간 품종통일이 어려워 ⑤ 가격문제로 인한 반목차이가 있을것 같아서
⑥ 농가간 협동의식이 부족해서 ⑦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⑧ 기타()

18. 감귤선과장 중·대형화 의향 및 이유는?

· 찬성 : - 찬성시 한 선과장 당 적정 선과규모는? 박스
· 반대 :

19. 현재의 감귤유통구조는 개방화된 유통체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① 잘 대응할 수 있다 ② 그런대로 대응할 수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응할 수 없는 편이다 ⑤ 전혀 대응할 수 없다.

20. 감귤의 유통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 순서대로 3가지 선택> 1위 _____ 2위 _____ 3위 _____

① 소규모 작목반(선과장)을 이용한 개별출하 체제 ② 출하조절체제 취약
③ 비상품 감귤처리 대책 미흡 ④ 상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부재
⑤ 산지유통의 농·감협·삼중구조 ⑥ 과도한 물류비 부담
⑦ 기타 ()

21. 감귤의 작목반 위주 소형선과장체제를 전문경영인(농·감협 직영 포함)이 운영하는 대형선과장체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 반대한다

감사의 말씀

어느덧 한편의 논문으로 결실을 맺게 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움을 드려야겠지만, 먼저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와 논문이 이루어지기까지 미흡한 저를 세심한 배려와 격려로 지도해주신 玄公南 指導教授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논리적이지만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논문을 꼼꼼히 정성스럽게 다듬어주신 姜東一 教授님, 劉永鳳 教授님, 그리고 학위과정 중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姜景璿 教授님, 姜志勇 教授님, 金璟宅 教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金翰琳 教授님, 金貞禧 先生님, 金洪洙 先生님, 玄琪錫 先生님, 金天根 先生님, 朴順玉 先生님, 高令任 先生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완성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한결같이 도움을 준 서고 동문회 모임(상철이형, 명학이형, 충건이형, 승훈이형, 충근이형, 영진이형, 광민, 태완, 태훈), 동네친구들(학훈, 경운, 종익, 근실, 학률, 민철, 동근), 사자취 모임(원재부부, 상무부부, 종진부부, 경도부부, 경은 부부, 대승, 성룡)과 담을 모임(행관이형, 형국이형, 창완이형, 봉익, 종우, 미란, 경훈, 자경, 경미, 미순, 길남, 정남)과 대학원생 후배(정순, 마야, 정욱, 재성), 학과 후배(기수, 태혁, 미숙, 혁수, 정금, 지영, 민석, 재용, 수용, 해영)와 친구인 한철, 병수, 석봉 그리고 농축수산물유통전문가과정 1, 2, 3기 원우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오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주신 누님과 매형, 형과 형수님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시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고, 진정한 지금 내가 여기 있게 되어서 땀 흘리시고 애써 눈물을 참으셨던 어머니님, 늘 어난 주름살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모아 이 논문을 드립니다.